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4
SUMMER
VOL.51

『겨자씨』 청년기자 3인 3색 인터뷰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묻는
아홉 가지 질문

해외 선교사 8人

내 생애 최고의 사역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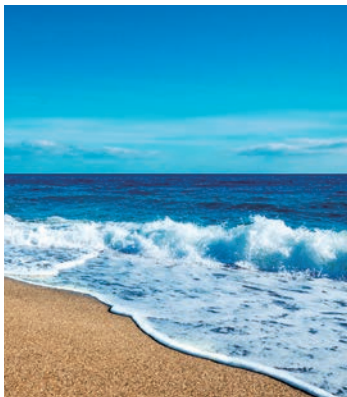
SUMMER
Kwangsung Special

겨자씨.

2024 SUMMER VOL.51



CONTENTS



표지사진
Engin Akyurt

04
VISION 24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05
'제1회 원텐텐 캠핑 가정예배'!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원종하
ESG 경제 시대 로고스로 준비해야

07
2024 Kwangsung Special

08
Interview | 곽승현 위임목사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묻는
아홉 가지 질문



13
**2023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소식 | 황남덕 外 7인
내 생애 최고의 사역 한 컷

18
The 희망나눔
유치부 교사 이상천 안수집사

20
Issues & Trend | 1.5℃

21
기후 위기와 그 대책 | 조천호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24
우리는 환경 지킴이 | 정진훈
벽제천은 우리가 지킨다



26
우리는 환경 지킴이 | 신태호
'Re-born'

28
7월의 향기 | 차선우
청년 목사의 이야기

30
예배위원회 | 청년기자 3인 합동 취재
나는 예배자입니다

32
성경 컬러링 | 노아의 방주

34
콘텐츠 전도 | 채수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5
꿈꾸는 다음세대

36
꿈담 | 영아부
똥망똥망 올망졸망

37
꿈담 | 유치부
연둣빛 믿음이 초롱초롱 자라나요

38
꿈담 | 초등 5부
우리가 누군가?
열정 100도 초등 5부 아닌가!

39
꿈담 | 초등 5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초등 5부!

40
꿈담 | 중등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42
꿈담 | 고등부
당신은 전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44
2024 특별기획 | 임회국
‘AGAIN, 1907!’ ③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신앙각성운동

48
이웃 교회 탐방
경기 파주 운정 거룩한빛예안교회

50
이웃 교회 이야기
거룩한빛예안교회 기도 편지

52
광성드림학교 | 김정준
광성드림학교 교육 철학 2 - 기독교 교육

53
광성드림학교 | 드림공동체 기도회
매주 수요일,
학생 주도 드림공동체 기도회

54
광성드림학교 | 기독교학부모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55
광성드림학교 | 교실축복기도여행
아버지의 축복권을 교실로!

56
우리는 3040
행복이 다섯 배, 오문천 집사님댁



58
경제
이기심, 아담 스미스의 ‘자기애’와 황금률

6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62
이중수 기자의 교회 구석구석 포토에세이

65
청년광장

66
HOT ISSUE
BIT 크루

68
직장 연가 | 김요한
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만난
프로그래밍 교육 기획자가 느낀 것

70
우리 결혼했어요 | 전중배, 최슬기 부부
우리 부부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72
두근두근 열정 | 임은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여정

74
함께 배워요 | 수어

75
문화 & 독자 마당

76
우리 교회 예술가 | 구정선
物의 꿈

77
poem | 김진옥
사랑의 편지

78
명작 Review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80
여행
여름엔 강릉이지!



82
독자 광장 | 홍맹순
내 사진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83
이벤트
피서지에서 생긴 일

84
크로스로드 | 김영은
크로스로드 기프트로 감사와 사랑을
전해요, 크로스로드 기프트!

8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70여 가정이 참여한 '제1회 원텐텐 캠핑 가정예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 평소 같으면 자동차가 뱅뱅하게
들어갔을 거룩한빛광성교회 야외 주차장에 70여 개의
돗자리가 펼쳐졌다. '제1회 원텐텐 캠핑 가정예배'가 열린
것이다. 원텐텐 캠핑 가정예배는 '예배'와 '캠핑'을 믹스한
프로그램으로 70여 가정의 300여 명이 참여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마련한 가정사역위원회에서
는 한 가정 당 삼겹살 1kg과 소시지를 제공했다. 녹색의
바람이 불어오는 돗자리 위에 웅기종기 둘러앉은 원텐텐
캠핑 가정예배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삼겹살 파티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후 5시에 시작한 제1회 원텐텐 캠핑 가정예배는
내년을 기약하며 오후 7시에 막을 내렸다.



자신의 소망을 발표하는 시간



검은색 선글라스에 노타이 흰색 와이셔츠와 슈트를 멋을 낸 광승현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은 오프닝 무대에서 한껏 흥을 돋우었다

ESG 경제 시대 로고스로 준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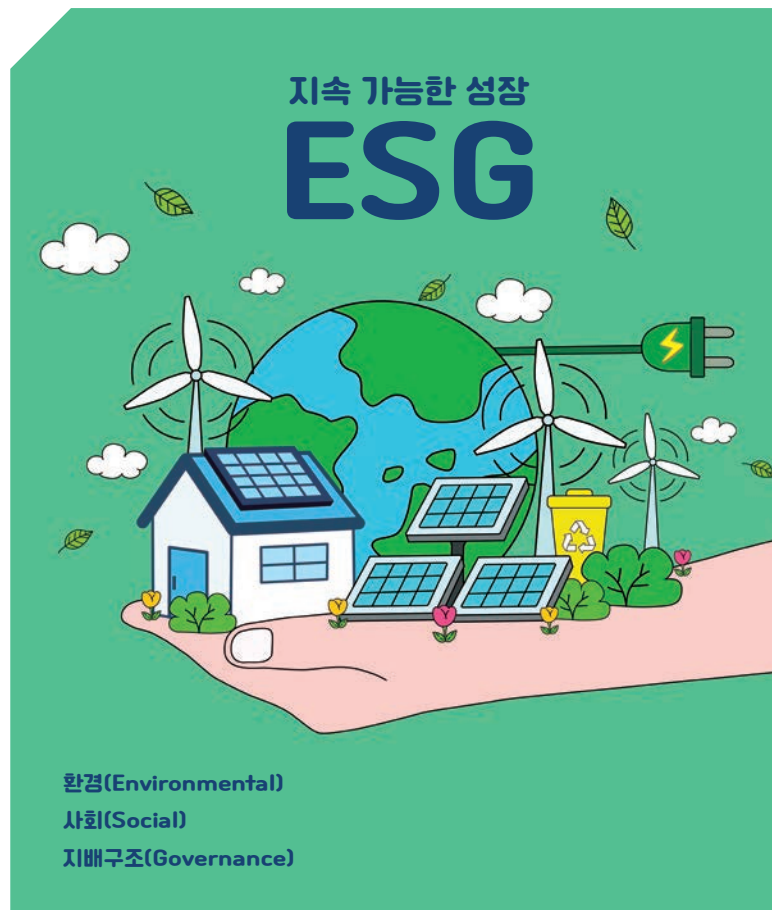
글 원종하(인제대 경영학과 교수, 시인)



요즈음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르다.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계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 현상을 환경학자들은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활동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즐겁게’를 외치며 땅의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결과,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지구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며, 그 해답은 단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말씀의 반석 위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는 개인적 삶의 윤택함과 자국 이익의 추구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성장의 그늘에 놓인 문제에 대한 대책과 원인을 제거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로부터 나온 것이 ESG 개념이다. 세 개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균형을 추구하되 무엇을 먼저 하



라도 나머지 2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의 공공가치 추구, 그리고 모든 조직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지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5장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경제의 모든 주체는 직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자를 먼저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2030년 ESG 관련법이 제정되면 기업은 지금보다 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개인의 삶 역시 규범과 도덕적인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영성의 시대(Spiritual Society)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로고스(logos)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지혜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실천하면 위기는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임을 믿는다.

2024 SUMMER Kwangsung Special

누구와 함께 With whom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 광승현 위임목사와 『겨자씨』 청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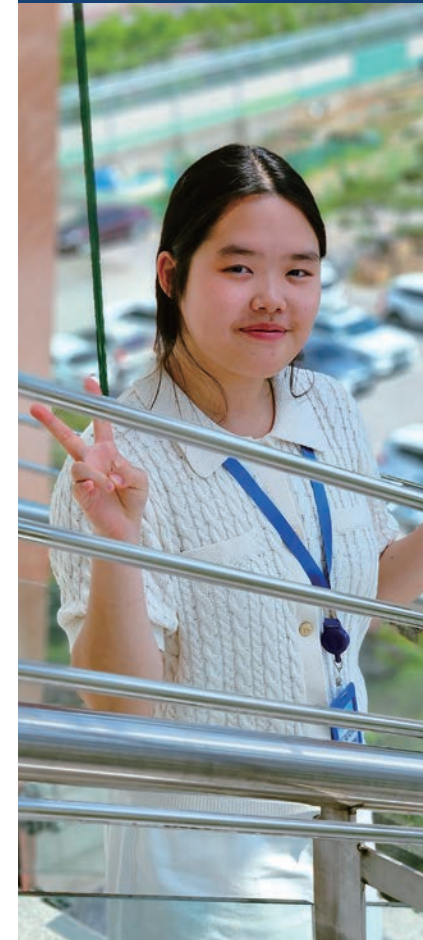
청년 & 취업

이종수 청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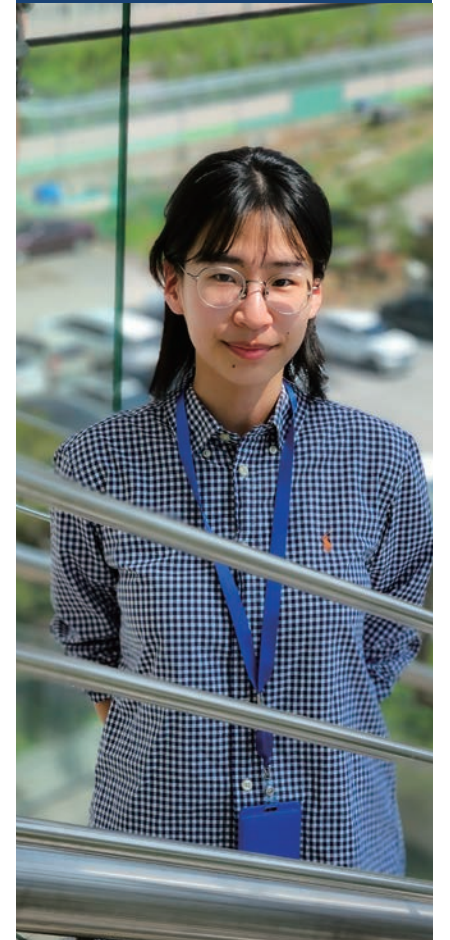
마음 지키기 & 섬김

고예님 청년기자



결혼 & 신앙

김다빈 청년기자



『겨자씨』 청년기자 3인 3색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에게 묻는 아홉 가지 질문

‘청년’이란 이름 속엔 ‘꿈의 씨앗’이 가득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현실은 꿈을 펼치기에 버겁기만 하다.

이에 『겨자씨』 청년기자 3인은 이 시대 청년들이 안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들고

광승현 위임목사를 찾아 헌답을 구했다.

청년기자단은 광승현 위임목사에게 ‘청년 & 취업’, ‘마음 지키기 & 섬김’, ‘결혼 & 신앙’ 등을 주제로 하여 아홉 가지 질문을 내놓았다.

인터뷰이 광승현 위임목사
인터뷰어 이종수·고예님·김다빈 청년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진행 & 정리 전영의 기자

청년 & 취업 이종수 청년기자

청년의 때는 '완성의 시기' 아닌 '발견해 나가는 시기'
직업에 대해 유연성, 포괄성 필요

1. 어떤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물음을 가지고 목회에 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면'을 가정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지향점입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2. 목사님께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청년이란 무한한 가능성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행복합니다. 청년이란 시기는 바로 '그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길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것입니다.

20대 청년의 시기로 돌아간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현재 아내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저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취업'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면 평생 가슴 속에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현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취업이라는 태산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의 때는 '완성의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좋은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연봉, 안정성, 사회적 평판, 직업 지속성? 중요하죠! 그런데 직업 선택에 있어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직업을 통해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기분석이 있을 후 그다음 직업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수없이 생성되고 선행의 대상이었던 직업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곳 아니면 안 돼!"라며 '한 회사' 또 '한 직업군'을 특정하지 말고, 직업에 대해 유연성과 포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히 자기를 계발하고 역량을 키워가면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성취하고 성장하는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좀 더디면 어때요? 또 좀 돌아가면 어때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 청년들의 축제 '빛청데이'의 한 장면. 청년들이 간식차를 선물한 광승현 위임목사의 전신상 포토존을 만들어 추억을 남기고 있다

마음 지키기 & 섬김 고예남 청년기자

'고난' 없으면 '성장'도 없어...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

4. 목사님은 개인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휴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목회자의 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면 아내와 저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외곽의 카페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곳이 우리 부부의 '쉼'의 공간입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각자의 노트북을 펼쳐 맡은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아요. 장소만 옮겼지 여전히 사역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간의 고단함이 말끔히 씻겨나가고, 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쉼'이 있고,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어른이 되면 편한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책임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감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 때는 입시를 벗어나면, 대학생 때는 취업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직장인이 되면 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사람은 더 상위의 것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삶의 무게가 있고, 자신이 짊어진 것이 가장 크고 무겁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동태 장사로, 아버지는 돌 깨는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집은 늘 가난했어요. 아들만 다섯인 집안의 막내였던 저는 돈이 없어 못 한 것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만 불편했어요.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편하지요.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보세요.

6.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교회학교의 다양한 부서에서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스승을 만나는 복이 인생의 으뜸'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교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청년 교사들이 교회학교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 3D 봉사' 중 하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처음 초등학교 3학년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어찌나 제 말을 안 듣고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튕리는지 주일마다 정신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사의 처음과 끝은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사랑'의 물을 꾸준히 뿌려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사랑받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의 사랑은 다시 그들의 다음세대로 이어지면서 세대를 거스른 사랑 릴레이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죠.



« 청년기자단에게 '꾸준히 자기를 계발하고 역량을 키워가면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광승현 위임목사

결혼 & 신앙

김다빈 청년기자

성경에 ‘꼭 결혼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결혼은 성경적 원리 담고 있어’

교회 공동체 떠나면 신앙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

7.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는데 비기독교인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 상대가 비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크리스천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그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맞닥뜨리는 문제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연애 기간 중 비기독교인 연인에게 하나님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랑 종교가 같아야 돼.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 나와야 해.”라는 강압적인 권유여섯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집에 가면 으레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듯이, 내가 아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알고 그분이 주는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을 겪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란 영적으로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8.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누군가를 만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데 주변의 결혼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을 여럿 봤습니다. 또 ‘내 집 마련’, ‘직장과 육아병행’ 등 결혼으로 인해 마주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결혼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제 결혼생활을 예를 들어 풀어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되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큼니다. 결혼해서 제 것을 버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함께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더 큼니다. 성경에 ‘꼭 결혼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혼자 산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결혼은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

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성품을 다듬어가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입니다.

집, 자동차, 워라밸.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상적 관점을 뛰어넘어 성경적 결혼관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GNP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최하위인 부탄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아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뭡가요? 행복은 경제적 여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해 아기를 낳고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집’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 최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떠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전통 제도에 얽매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비전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고 출발해야 할 것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만 주장하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성세대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떠남이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공동체의 원리를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바로 ‘장작더미의 비유’입니다.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장작개비 하나를 꺼내 따로 두면 홀로 떨어진 장작개비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듭니다. 믿음은 혼자서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데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보면 ‘소통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책당회’ 또한 청년회장이 참석하는 열린 당회이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의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3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부활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부활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2023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통해
부활절 헌금 전액(1억 4211만 8868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6,400,000원
	다문화		
	노인		
	장애인	청년창업 지정	180,000원
	청년		
	환우		
	작은교회	작은교회 지원	4,605,000원
교인 지정			21,780,000원
선교사, 형제교회			8,080,000원
타 교회, 타 교인 지정			9,990,000원
크로스로드 비빌언덕			10,800,000원
궁홀 구제 사역			72,309,168원
합계			142,118,868원

해외 선교사 8인의 내 생애 최고의 사역 1컷

아마존강 인디오 세례식

글 김영균 선교사(아마존 떼페)

아마존 미전도 인디오 종족 사역 14년 만에 처음으로 2019년 1월 선교 대상인 아마존 마지하 쿨리나 부족이 사는 아마존강 상류 오지 밀림 쿠마루 지역의 파우피슈나 마을 전체 세례식을 드렸습니다. 인디오 미전도 종족 사역 14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 5년 만에 다시 인디오 마을 세례식을 2024년 4월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상처 받은 미얀마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글 이국찬(미얀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의 미얀마인들이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13차례 구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치앙마이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출발하여 미얀마 매누타 난민캠프까지 전달하기 위해 가는 도중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4월은 건기인데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고 제가 전달한 구호품을 받



아 배에 싣고 난민캠프로 돌아가야 하는 미얀마 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구호 물품을 싣는 장면을 보면서 전쟁의 아픔과 이들의 곤고한 삶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보내는 구호 물품은 작은 것이지만 난민들이 막막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에 이를 이상을 오고 가는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이 순간이 의미 있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맹인 환자

글 문병수 선교사(베트남)

저는 마취과 의사로, 2000년도부터 베트남에서 한인교회 사역과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와서 무료 진료를 갔을 때, 시골 학교에서 진료하는 사진입니다. 베트남 의사들과 함께 진료를 갔는데 외국인 의사가 왔다고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맹인이었는데 저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환자여서 유난히 제 가슴에 남습니다.

일본 지진의 역경 속에서 조금씩 피어나는 하나님 사랑

글 심일한 선교사(일본)

2011년 있었던 동북 지방 지진은 일본 역사에서 손꼽히는 큰 지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시노마키시(市)인데 물이 빠지지 않은 곳곳에 무릎까지 물이 차 있었고, 물 위에는 기름층이 두껍게 있었습니다. 자동차, 배, 주유소 등에서 터져 나온 기름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가득한 생선 썩은 냄새는 마스크를 뚫고 폐 깊은 곳까지 진하게 들어왔고, 이날 이후로 1년 정도 생선을 입에 뱉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 때 입었던 썩은 냄새가 뱀 방수복은 몇 번을 빨아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 결국 버려야 했습니다.

무척 고생스러운 봉사였지만 이 사진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당시 지진을 돕기 위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피해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 보도량이 줄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당시 이시노마키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지원이 점차 줄어들어도 교회와 선교단체는 꾸준히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거리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피해를 1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 집안에 신상(神像)을 두고 모시던 아주머니도 그리스도인이

이 되었습니다. 이시노마키는 5년 사이 교회가 20개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올 1월 일본의 서쪽 노도 반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동북 지진처럼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수술한 어깨로 인해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조만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다시 기대합니다.





라트나푸라교회 아이들과 함께

글 윤형진 선교사(스리랑카)

저는 지난 10년간 스리랑카 장로교단과 함께 협력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리랑카 장로교단에 속한 스리랑카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중산간 지역에 라트나푸라(보석의 도시)에는 작은 기도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성도 대부분이 스리랑카 실론티를 생산하는 가난한 차밭의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입니다. 선교사의 어떤 사역보다 현지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교회의 작은 소망인 스리랑카교회의 미래가 아름답게 꽃피우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내 생애 선교 사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숨겨 두신 보석을 찾아 나섭니다

글 김상철, 정은영 협력선교사(인도네시아)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58,000명까지 죽으며 힘들었던 인도네시아를 기억합니다. 모두가 서로 만나기를 꺼리며 숨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150명분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무작정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도 없는 많은 노숙자들을 만났습니다. 보내드린 사진은 도시락을 나누다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여 며칠을 굶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시락을 주었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석을 숨겨 두셨는데 그 보석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했던 그때가 저에게 최고의 사역 한 컷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울어주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까비테 쓰레기마을교회 첫 세례식을 마치고

글 정준 선교사(필리핀)



무덤을 지나 쓰레기 하차장을 가로질러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언덕 아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여러 질병을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외부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존재감을 상실한 다수

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가난 때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초기에 병원을 가면 고칠 수 있는 병도 결국은 점점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허다한 이곳. 열등감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 없이 내일이 오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를 견

뎌내며 사는 까비테 쓰레기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의 불씨가 되었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약취가 나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마을을 덮어가고 이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절망보다는 천국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 한 그릇 더 먹겠다고 아우성치며 싸우던 그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서서히 변해가더니 6개월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눈물 반 콧물 반을 흘리며 세례를 받던 그 날. 그때의 모습과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까비테 쓰레기 마을 교회의 역사로 그들과 제 가슴에 영원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 리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찬양팀으로, 방과 후 공부방 선생님이로, 충실한 여전도회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하시는 주님

글 김성식(필리핀)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김성식·이미경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필리핀 현장에서 교회 개척과 목회자 역량 강화를 통한 9개 교회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까르도나침례교회 사역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흠어진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나무 기둥이 쇠기둥이 되게 하셨고, 대나무 교회가 벽돌로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돕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선교의 사명을 건강하게 이어가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신발장 앞에 제 자리입니다 유치부 교사 이상천 안수집사

글 전영숙 기자

» 이 집사는 유치부 친구 하나 하나 일일이 반기며 챙겨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100세 인생이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그리 길지 않다. 그래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데 일찌감치 그 길을 정하고 자신과 7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아이들과 한데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이상천 안수집사를 만나 보았다.

하얀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이 집사를 마주 대하니 말을 나누기도 전에 왁지 마음이 푸근해진다. 아이들과 오랜 기간 함께해서 그런 듯했다.

“20대 청년 시절 주업교회를 다녔는데 당시엔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청년이 거의 없었던지라 1년 만에 학습을 받고 나니 교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초등 1학년 4명을 맡게 됐는데,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 나름대로 공과를 달달 외워 갖기에 잘할 줄 알았는데 출석을 부르고 아이들의 까만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얼굴 보고 웃기만 하다가 그냥 공과 시간이 끝나버렸지요.”

뭘 잘못했나 생각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공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이 집사는 그 길로 주변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섬기는 교회는 담임을 맡은 전도사님이 주일에만 왔기 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 근처의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으니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추천받은 『주일학교 교사의 벗』,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정독하며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했단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사랑부를 10년 넘게 섬겼다. 그런데 유치부에서 2년 정도 방송시설 담당으로 봉사할 때 아이들의 작은 다툼에 관여하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던 아이 둘이

이 집사의 옆구리를 찌르더니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듯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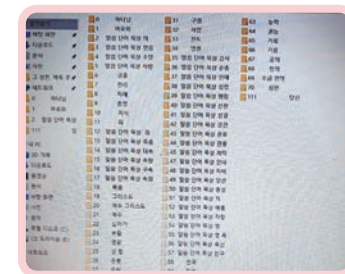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아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아이들 각자의 마음을 다독이며 친구가 생각대로 맞춰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더라고요.”

아이들과의 함께함에 기쁨을 느낀 이 집사는 유치부를 섬기고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이로 인해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기에 교사를 맡으라는 권유는 정중히 사양했다. 그 대신 자신의 손때가 묻은 신발장에 애착이 느껴져 신발장을 자신의 섬김 장소로 정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첫인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그리고 신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라 생각하며 기도한다.

“밤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죽는 날까지 교회학교에서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서원을 하게 됐어요. 교회학교는 나의 ‘도피성’ 이거든요.”

사회 생활할 때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이들에게 기술을 배우면서 혼나기 일쑤였지 대화라고는 거의 나누지 못했고, 교회에서도 교회학교를 주로 섬기느라 동년배나 동기가 없었던 탓에 이 집사에게 유치부 친구들은 귀한 소통의 상대였던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고 교회학

교에서 마다하지 않는 한 이 집사는 교회학교를 섬기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바람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면서 주제별 성경 구절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이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다. 사역자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둘씩 깨닫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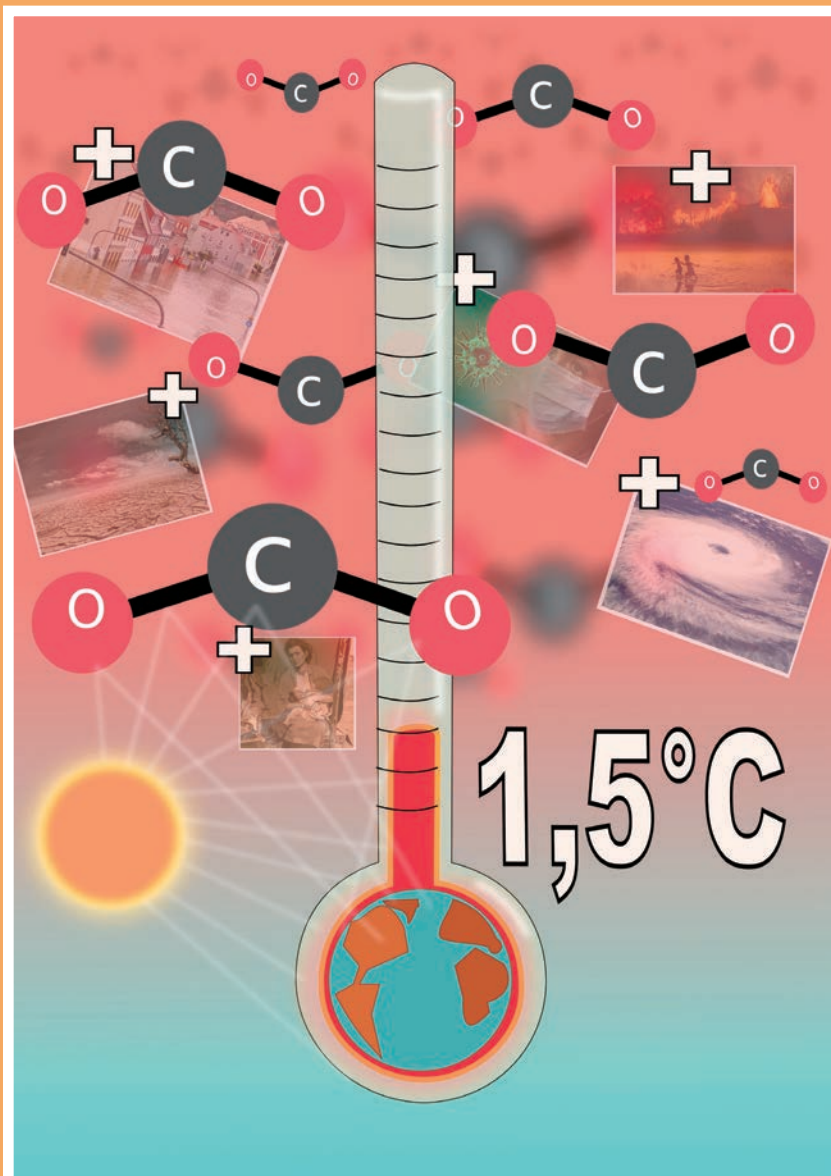
» 이상천 집사의 손길로 깔끔함을 자랑하는 유치부 신발장

« 이 집사는 직접 정리한 주제별 성구 목록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란다

»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로 사선을 끄는 이 집사



1.5°C



I

기후 위기와 그 대책

—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글 조천호

II

우리는 환경 지킴이

—
벽제천은 우리가 지킨다

글 정진훈

—
'Re-born'

글 신태호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글 조천호(대기과학자,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인류는 전쟁, 자연 재난, 감염병과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 그런데도 그 위험에 끝이 있었고 그 후 회복되었다.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위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위험을 압도하는, 인류가 이전에 직면한 적 없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도달했다는 것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분명해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고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 십상이고, 그러는 만큼 적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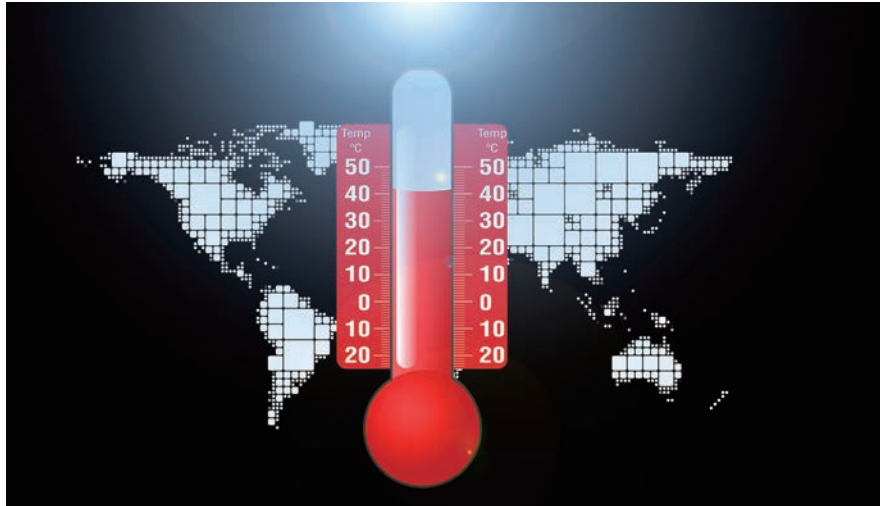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 25:13>

현재 세계 경제는 매년 약 3%씩 성장한다. 이렇게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는 두 배가 된다. 이 모든 성장은 인간의 두뇌와 근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성장은 그만큼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온실가스와 오염 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야 이룰 수 있다.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실현 불가능하다. 지금 이대로 인류가 내달린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의 여건이 우리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그 결과 일어나는 기후 위기로 인해 문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처럼 우리는 지금껏 내달려 온 세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멸망치 않고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온난화' 시대는 가고 '보일링' 시대를 맞은 지구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지구 온난화 1.5°C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구 온난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 당뇨병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 심장질환, 뇌졸중, 신부전, 실명과 같은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려 기후가 변덕스럽고 가혹한 상태로 만든다. 결국 마실 수 있는 물, 적절한 식량, 안락한 거주지가 더 불안정해진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자동차 속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수록 위험 발생이 급격히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속 50km로 달리다 10km를 더 가속해 60km로 달릴 때, 그 10km 가속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기온 상승이 0.5°C에서 0.1°C 상승한다 해도 그 0.1°C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시속 100km를 넘으면 10km를 더 가속할 때마다 그 위험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이미 인류는 지구 평균기온을 1.1°C 상승시켰다. 지금부터는 0.1도 더 상승시킬 때 기후위험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속 150km, 200km와 300km는 기온 상승 1.5°C, 2°C와 3°C인 경우라고 여길 수 있다. 시속 150km를 넘으면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시속 200km를 넘으면 위험을 각오해야 하고 시속 300km를 넘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 기온 상승 3°C는 문명 붕괴 상황에 빠졌다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기온 상승이 계속되어도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에 이르렀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지구 온난화 1.5°C, 최대한 양보한다고 해도 2°C가 의인 10명과 마찬가지다.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UN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가 지구 온난화 1.5°C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 온난화 1.5°C를 넘게 될 것이다. 1.5°C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2022년에 발간된 UN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점점 더 비용이 효율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 기후 위기 대응 기술이 있음을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이 기술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환의 시대에서 기존 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필패다. 현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는 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땅속에 묻혀 있는 대부분의 화석 연료는 그곳에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풍부한 음식을 옆에 두고 스스로 배고픔을 참을 수 있을까? 기후 위기 대응은 인류가 스스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눅 12:15>

기후 위기는 파멸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수록 공기와 물이 더 깨끗해진다. 대기질 개선 효과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토지를 더 현명하게 사용하면 기후 위기를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 대응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공동체는 돌봄과 배움으로 이루어진 손길들이 모여져야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하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두가 함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다행히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과 새 세상이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도 그 안에서 나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서에서 멸망 예언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심을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최후의 기회이자 최선의 기회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변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렘 29:11>



‘기후 위기’라는
깊은 어둠에 잠긴 지구.
어떻게 빛을
찾을수 있을까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 벽제천은 우리가 지킨다

글 정진훈 목사(에덴정원교회)



1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는 2012년 가을에 결성되었습니다. 2013년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교회를 설립한 에덴정원교회가 노회에 등록하기도 전에 청소년들의 마을 봉사를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입니다.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20시간씩 3년에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내신에서 봉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봉사 수요처의 일정이나 환경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수요처를 연결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에덴정원교회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 초기부터 마을과 소통하며 마을이 필요한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라는 단체를 2012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마을에 필요한 일 중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근의 중·고등학교에 제안해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아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 서울서북노회 '줍깅프로그램'에 참여한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 학생들
2. 생태 퀴즈 '이름을 불러주세요'
3. 벽제천 쓰레기 수거 활동
4. 수질 정화 식물 '고마리'가 만발한 벽제천

제일 먼저 했던 활동은 마을 가꾸기와 독거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양동은 아파트단지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마을로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던 곳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담배꽂이가 쌓여있던 곳에 작은 화단을 설치하고, 조금 넓은 장소는 화단을 만들어 가꾸기도 했습니다. 쓰레기와 잡초가 쌓여있던 곳에 화단을 설치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양동은 벽제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개명산에서 시작하여 공릉천으로 연결되는 하천인데, 하천으로 흘러들던 오수관 공사를 하면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고양시 하천관리과에서는 고양하천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군부대, 학교, 봉사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구 간별로 하천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도 고양하천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벽제천 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벽제천 지킴이 활동은 청소년들이 마을의 보물인 벽제천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하여 생태조사, 유해 외래식물 제거, 벽제천 살리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벽제천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태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벽제천변에 자라고 있는 갈대과 고마리 등의 풀은 물속의 유기물을 흡수하여 질소나 인 등의 양분을 만들어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번식해서 물속의 산소가 줄어드는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해서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천에 풀이 많아서 모기가 발생한다고 민원을 넣어 하천의 풀을 제거하는 공사를 해서 오히려 하천의 환경을 망치는 일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른 생태 지식을 알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를 보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마을과 하천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 축제에서는 식물들의 이름을 맞추는 생태 퀴즈대회인 '이름을 불러주세요'라는 활동도 하고,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서북노회 사회봉사부와 함께 줍깅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높은빛청소년봉사학교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던 봉사활동도 올해부터는 다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천네트워크활동도 다시 시작하고, 청소년들의 환경생태봉사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을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2



3



4

'Re-born'

글 신태호 목사(광주벚엘교회)

2022년,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광주벚엘교회(위임목사 리종빈)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녹색교회'를 지향하기로 결단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1 교회 안에서

① 에너지 절감 예배

“오늘은 에너지 절감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3월 24일, 위임목사님의 선포로 종려주일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절감 예배'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전자 오르간 대신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본당의 모든 조명은 꺼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어두운 본당을 비춥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로 교회 내 계단을 비추는 전등은 30% 정도, 최소한의 빛만 남기고 온라인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음향 장비(마이크 2개, 핀 조명 1개)를 제외한 모든 장비의 전원은 다 끄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음세대 예배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년과 다음세대, 모두 난방을 끄고 예배를 드리기에 평소보다 조금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평소에 누리던 편리함을 다시 돌아보며, 이 불편함이 지금의 우리와 다음세대가 살아갈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② 환경 주일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정하여 '녹색운동'을 실천합니다. 이날, 교회 모든 주차장(총 150여 대 주차 가능)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택시 타기' 운동 등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탄소제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아끼고, 다스리라는 말씀(창 1:28)을 실천하며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감 예배



⬇ 청년부 '줍깅'



⬇ 6K 행사(월드비전)

3 교회 안팎에서

① 녹색 리본

2024년 3월, 부활절을 기점으로 '녹색교회' 정신을 예배와 삶, 교회 안팎으로 이어가고자 '녹색 리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녹색은 '생명', 리본은 'Re-born'으로 거듭남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녹색 리본'을 평소 입는 옷이나 가방에 부착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녹색교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착한 리본을 통해 서로 '녹색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교회 안팎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게까지 조금씩 '녹색운동'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Re-born',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녹색교회 운동'은 교회의 모든 위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교회 운동'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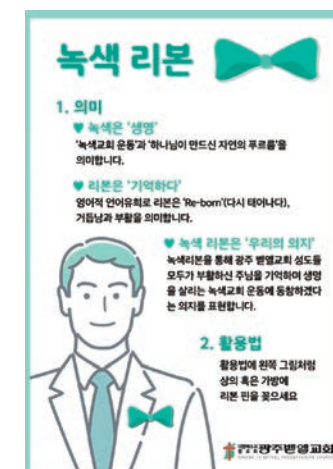
2 교회 밖에서

① 녹색교회 실천방안

매월, '전기 플러그 뽑기(10% 요금 절감), 찬물로 세탁기 사용(30% 전기 절약)'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주제와 효과를 주보에 기재하여 성도 모두가 생활 속에서 '녹색교회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연계하여, 매주간 '온라인쇼핑 금식', '플라스틱 용품 금식', '고기 금식', 'TV 시청 1시간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저녁 1시간 촛불 켜고 기도하기' 등과 같은 '탄소 금식'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② '6km' 걷기

22년 10월,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6km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6km는 아프리카에서 물을 길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은 아프리카 지역의 우물을 파는 사역에 후원되었고, 참가자들은 6km(혹은 3km)를 걸으며, "플로깅(줍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우며, 덤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보람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24년, 현재에도 이어져 청년부에서는 매월 교회와 지역 주변을 걸으며 "줍깅"을 실천하며, '녹색교회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녹색 리본 운동 포스터



⬇ 녹색 리본을 착용하고 설교 중인 리종빈 위임목사

청년 목사의 이야기

글 차선우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청년부 예배 설교

안녕하세요? 저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총괄 사역과 문화선교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차선우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겨자씨』를 통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이야기를 통해 이 글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던 나

저의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다른 꿈이 있었다기보단 목사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랑을 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꾸리게 되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만큼의 부모가 된다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일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뷔페 알바, 선상 레스토랑 알바, 아파트 인테리어 알바, 노동 알바, 복지관 일 등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대학교 1, 2학년 때에는 축구를 워낙 좋아해 축구 해설을 공부하고 싶어서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자신감이 충만했던 청년이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나 봅니다. 대학교에 가서 축구학과를 다니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 동시에 저를 채플 팀에 들어가게 하셔서 오히려 많은 사역자님들, 신앙의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회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평신도로 잘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며 여러 일을 겪게 되면서 축구에 관련된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길만 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질문을 주셨죠. “선우야, 어디로 갈래?” 하나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2가지 길을 두고 선택하라고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죠. 남은 길은 바로 ‘신학’의 길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버티면서 신학교를 절대 가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하나의 길만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로 한 나(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저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1년 동안 새벽예배를 다녔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잠들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떨렸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1년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제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이야기는 “선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 해도 되지만 목사는 아니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문을 열고 방에 들어와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우야, 올해 학교 복학 할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신학교 가려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 그럴 줄 알았어!”라고 소리치시며 방문을 꽁 닫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 좀 돌려주시지.”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버지께서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우야, 네가 나의 완전한 아들이면 나는 너를 끝까지 말렸을 텐데 너는 내 육신의 아들일 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겐 너를 말릴 권한이 없다.” 그렇게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먼저 서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한 일이 더 감사한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은 싫어하게 되면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목회의 길은 아닙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제가 그만둘 수 없으며 오직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더욱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모습

목사 안수 받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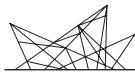


이런 목사가 되기로 한 나

그렇게 저는 2개의 교회와 청년부 사역을 거쳐 2020년 11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에 부임하게 되었고 현재 4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늘 똑같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이 공동체를 떠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장 예배의 인원 회복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이것을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어떠한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의 신앙을 가르쳤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필요한 말을 할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필요한 말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낭떠러지로 뛰어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박수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고 와 거기는 낭떠러지라고 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론 저를 미워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들이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저희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청년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저의 삶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제게 맡겨주신 청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목사가 되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자씨』 청년기자단 '예배위원회' 합동 취재 나는 예배자입니다

글 고예남·김다빈 청년기자 /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당신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가꾸어 가는 이들.
먼저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배위원회'입니다.

1 예배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회는 예배준비팀, 예배안내팀, 봉헌팀, 휘장팀, 성례준비팀이 있습니다. 예배준비팀은 강대상 청소, 강대상 뒤 의자 등받이와 방석 준비 등 청결 작업을 합니다. 예배안내팀은 1·2·3·4부 예배 및 부흥회 등 특별한 행사 또는 정기 행사를 진행할 때 성도들에게 좌석을 안내해주며 질서 유지를 도와줍니다. 봉헌팀은 예배 때 봉헌함을 올리며 각 예배 처소의 헌금함을 관리하고 재정부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휘장팀은 절기별 성전 휘장을 교체하며, 성례준비팀은 성찬식과 세례식을 준비합니다.

2 예배위원회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요? 혹시 나이 제한 같은 제한은 없는지요?

예배위원회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예배위원회 역할 특성상 많이 서 있어야 하는 관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있어야 합니다.

3 예배위원은 현재 총 몇 분인지요? 일주일에 총 몇 번의 예배를 준비하는지요? 한 번의 예배에 보통 몇 분의 예배 위원이 봉사하는지요?

예배위원회 총 구성원은 80명이며, 한 번의 예배에 보통 15~20명의 예배위원분들이 봉사합니다. 15~20명에는 예배위원장, 부위원장, 봉헌 모두 포함입니다.

4 예배를 위해 위원회는 어떤 일을 먼저 준비하는지요? 예배 시간보다 몇 분 정도 미리 도착하는지 등등 예배위원회 모든 활동이 궁금합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합심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위원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도 후 예배준비팀, 예배안내팀, 봉헌팀, 휘장팀, 성례준비팀 등의 예배위원회 관할 부서로 이동하여 예배를 돕습니다.



예배 좌석 안내 중

5 본당 1층과 위층엔 각각 몇 분의 예배위원이 배치 되는지요?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원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건가요?

본당 2층, 3층으로 구분하고 2층 정문에 팀장과 부팀장이 배치되어 안내합니다. 좌석으로 가는 골목 입구에 1명, 해당 골목 안에 1명을 배치합니다. 3층은 양쪽 출입문에 각 2명이 배치되고 2층의 안내가 종료되면 3층으로 올라가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내 현장은 현장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6 예배위원 복장은 정해져 있는지요?

계절별로 여성 예배위원은 동복, 춘추복, 하복 자켓을 착용합니다. 남성 예배위원은 검정 또는 네이비 색상 계통의 정장을 착용합니다. 정장을 착용할 때, 하절기에는 넥타이 및 자켓을 탈의합니다. 여성 예배위원 구두의 경우, 발가락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예배위원회 회의나 모임에선 주로 어떤 내용을 토의하는가요?

예배위원회의 정기모임은 월례회,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에서는 담당 목사님 설교, 각 팀의 기도 제목 나눔 및 중보기도, 예정된 사역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장로님 권면 말씀을 나눕니다. 팀장 회의에서는 부흥회, 성찬식, 송구영신예배 등 당면과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의논합니다.

8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지요?

1·2·3·4부 예배팀의 동일한 애로사항은 뒷자리와 벤치의 가장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좌석은 벤치 형태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 성도들의 양보와 배려가 절실합니다. 늦게 온 성도를 위해 뒷자리와 벤치의 가장자리를 비워두길 요청하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온 성도를 위해 뒷자리와 벤치의 가장자리를 비워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9 방문자나 새가족 자리가 제일 뒤편에 배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새가족 안내 및 등록카드 작성이 용이하고, 방문자나 새가족이 없는 경우 늦거나 몸이 불편한 성도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문자와 새가족의 자리를 출입문에서 가까운 뒤편에 정했습니다.

10 좋은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배위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예배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기도 시간에 출입문의 통제를 통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예배위원회는 산소와 같습니다. 있어도 그런가 하지만 없으면 현재 예배 인원의 1/3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1. 예배위원회 위원장 봉영일 안수집사.
예배 시 본당 2층이 위원장의 자리다.
봉영일 안수집사는 1부에서 4부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런저런 상황을 체크한다
2. 휘장 교체 사역 중
3. 예배위원회와 『겨자씨』 청년기자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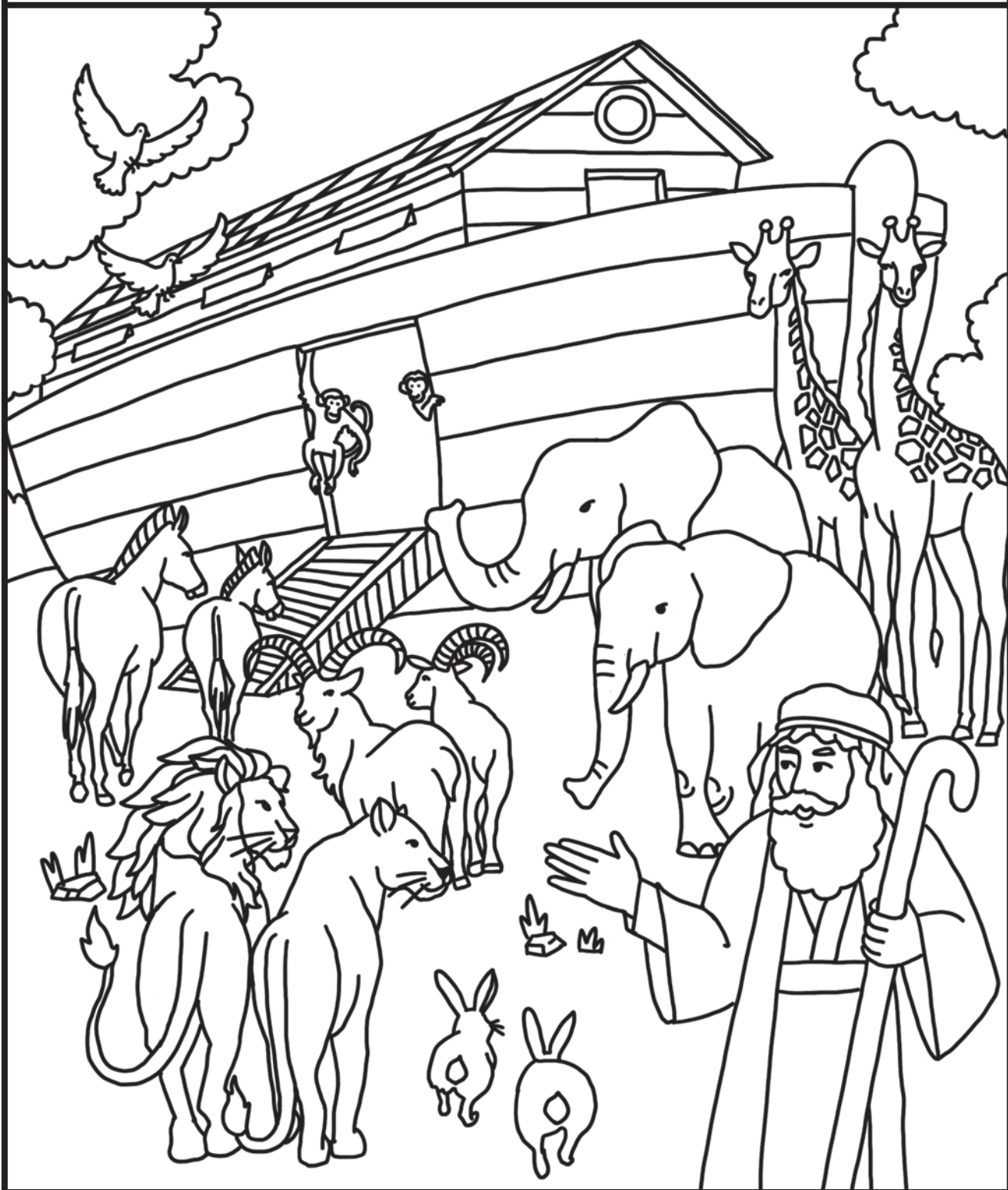
3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4점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노아와 언약의 방주로 모여든 동물들



컬러링 미션

마감: 2024년 7월 30일 | 보낼 곳: 010-2579-4687 | 참고: 성함, 연락처도 알려주세요.

도안 조혜리



‘성경 컬러링 이벤트’ 우수작 4점

지난 호 이벤트 ‘아담과 이브, 그리고 선악과’ 색칠하기에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선정작 4점을 소개합니다.



“성경 컬러링 작품 보내드립니다.
89세 김일려 권사입니다.”

김일려 권사 (거룩한빛광성교회)



“성경 컬러링 재미있어요.
제가 색칠한 성경 컬러링이 뽀짝길
기대했어요.”

백에서 (거룩한빛광성교회, 초등 3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색칠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종이가 광택지라 맘처럼 잘 안 칠해졌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경숙 집사 (거룩한빛광성교회)



“토요일 오후 성경 컬러링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원죄의 시간을 짊어진 우리 주님
대속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음미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권혜창 집사 (벤엘교회)

바이블 뮤직 전파하는 ‘한스트리’ 한병기 집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글 채수봉 객원 기자



ㄹ '한스트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 도래 및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 10년 사이 교회학교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목회데이터가 지난 2월에 발표한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에 따르면 담임목사와 교회의 주요 과제로 ‘다음세대 교육’이 3년 연속 1순위를 차지했다. 교단들은 ‘다음세대 세우기’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젊은 이들의 거리 홍대 골목 한편에 자리 잡고 ‘콘텐츠 전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음세대 전도를 준비 중인 이들이 있어 찾아가 봤다.

“다음세대 전도는 다음세대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전통적인 전도 방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도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다음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게임, 음악, 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해요.”

음반 제작은 물론, 공연기획, SNS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한스트리’를 운영하는 한병기 집사의 말이다. 밝은 기운으로 확신에 찬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불혹의 나이

가 훌쩍 넘은 그의 옷차림은 홍대 거리의 젊은 사람들과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감각적인 패션이었는데 이것도 한몫한 듯하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에 있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병기 집사는 한스트리 이전에도 한통도시락과 미도케이터링이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건설한 기업가이다.

“저는 어렸을 적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군대를 제대할 무렵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잠을 청하며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 기업을 운영하면서 한 번의 실패 없이 성장만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기 집사는 이미 성공한 기업가로 안정된 위치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통도시락과 미도케이터링에 대한 경영권을 함께 일궈왔던 임직원에게 모두 넘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스트리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한스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바이블뮤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성경 말씀을 비롯해 스포츠 홀리버스(Holy Verse)를 주된 콘텐츠로 하고 있다. 그는 바이블 뮤직 프로젝트를 위해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에 사무실을 열고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들의 앨범 제작비, 공연 연출 및 대관료 지원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뮤지션을 선별하는 데에만 꼬박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바이블 뮤직 프로젝트에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뮤지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뮤지션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뮤지션을 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익 원이 들어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교회를 주 무대로 진행하는 하나님 말씀 합창 공연, 소속 뮤지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유통, 소모임 커리큘럼(랩/댄스) 운영, 더 나아가 영화제작까지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동안 쌓아온 본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헌신할 것이라는 그의 말에 내 가슴 역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바이블 뮤직의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한다.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 꿈.담 ≦ 유아부

똥망똥망 올망졸망

글 정은숙 기자

≡ 말씀을 암송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막 9:37>

예수님 따라 자라가요

유아부는 70명의 유아들과 40명의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부의 핵심적인 활동은 말씀암송이다. 유아부 밴드를 운영 중이며, 밴드에는 공지사향과 함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올려주신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똥망똥망 말씀을 읊어가는 모습은 기특한 생각이 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꿈담페스티벌과 어린이주일 행사를 진행했는데, 꿈담페스티벌에서는 아이들에게 축제의 기쁨과 올해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추억할 수 있도록 풍선과 함께 배지 만들기 부스를 운영했다. 배지 만들기 부스가 제일 인기가 좋았으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들고 웃는 얼굴로 배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 어린이주일 그림예배



그림으로 예배드려요

어린이주일에는 그림 예배를 함께 드렸다.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말씀을 가깝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깊숙하게 이미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닐지라도 아이들이 생각하며 그리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진다. 유아부 양요한 전도사는 “말씀과 같이 아이들을 영접함으로 작은 예수로 길러내어 아이들이 세상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꿈담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유아부

≧ 꿈.담 ≦ 유치부

연둣빛 믿음이 초롱초롱 자라나요

글 정은숙 기자

온 세대 통합예배

손가락 하트 모양 같은 연둣빛 믿음이 자라서 6세 동생들도 유치부에 적응하고, 7세 형님도 말씀으로 초롱초롱 믿음과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유치부 친구들은 가정에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차도 꾸미며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유치부 어린이들과 찬양하고 환영하는 입체적인 활동과 설교 시간도 즐겁게 가져보았다.

부활절은 온 세대 통합예배로 드리게 되어 어른 예배에 참석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능동적인 예배자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으로 귀엽고 멋지게 봉헌 특송도 했고 7세 친구가 직접 은혜로운 기도문을 스스로 작성하여 대표 기도도 했는데 그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다. 온 세대 통합예배를 통해 유치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성장하는 다음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귀염귀염 핫도그

꿈담페스티벌 어린이 행사로 유치부에서 ‘귀염귀염 핫도그’ 부스에서 맛있는 즉석 수제 핫도그를 판매했는데 어린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크게 감동했다. 인기를 얻은 간식이어서 기쁘고 보람도 컸다. 꿈담페스티벌을 되돌아보며 다음세대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기 희망한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믿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어린이들의 밝고 맑은 웃음이 지켜지길 소망해본다.

유치부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변화의 빛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기도한다고 정현주 전도사님은 말씀하신다. 상반기 중요한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1. 생일잔치
2. 꿈담페스티벌
3. 귀염귀염핫도그

≧ 꿈담 ≦ 초등 5부

초등 5부 2024 상반기 활동 우리가 누군가? 열정 100도 초등 5부 아닌가!

글 김태극 전도사

‘성경골든벨’

부활절 예배 후 진행한 ‘성경골든벨’ 1부, 2부
우승자를 인터뷰한 사진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식구’ & 장기 결석 친구와 함께 식사 교제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 교회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장기 결석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로하며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어린이 한마당’ 때 초등 5부에서 진행했던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코너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다툼, 어려움 등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자기 안의 여리고성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견고하고 드높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등 5부 친구들도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초등 5부 친구들의 마음속 어려움과
우상을 깨뜨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승님께 꽃 달아드리기

스승의 주일을 맞아 초등 5부는 그동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예쁜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정례 부장님께서서는 초등 5부 친구들을 위해 격려차 방문하신
이홍식 장로님께 감사의 꽃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초등 5부 친구들의 꽃 선물에 선생님들 얼굴엔 함박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초등 5부!

글 최예준 학생기자

오는 8월 2일~8월 4일 초등 5부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초등 5부 김태극 전도사님께
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아닌,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로 결단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셨다. 우리도 초등 5부 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기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꿈담 ≡ 중등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글 태경환 학생기자

상반기 중등부는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개학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4목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기다리며 40일 동안 묵상하는 것이다. 또한 3월 3일, 학생 선교사 파송 주일이었다. 모두 멋진 교복을 입고 우리 학교에 하나님을 전하는 학생 선교사가 되기로 선포하는 날이다. 힘들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우리 중등부 학생 선교사들의 다짐이 멋있다. 그리고 3월 31일, 묵상하고 기도한 결실을 맺는 부활절 특별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지나다가 4월 중등부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됐다. 지난 제자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면접을 보고 뽑았다. 면접을 보고 뽑는 이유는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새로운 제자훈련을 통하

여 중등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갈 것이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6월부터는 여름수련회 준비에 들어갔다.

2024년 중등부의 표어는 Worship(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Bible(말씀이 기준이 되는 중등부), Pray(기도로 무장하는 중등부), Challenge(도전)이다. 이를 연결하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이고 주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응원한다.



'스승의 날' 주일예배



학생선교사 파송식

제자 훈련





자신이 전도한 친구를 데리고 온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 꿈.담 ≡ 고등부

당신은 전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글 최아인 학생기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고등부 학생
≫



이전 세대의 어른들은 찬양과 전도지 전달 등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현재 세대는 많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단의 존재로 인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혐오적인 시선을 점점 더 많이 받음에 따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조차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식전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내가 다닌 중학교의 경우 주변 교회에서 등하교 길에 전도지를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받지 않거나 길가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들이 교문 바로 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이 기억난다. 식전 기도 같은 간단한 크리스천의 행동조차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세대에게 '전도'는 어려운 단어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고등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일 4:16>'라는 말씀을 주제로 전도축제를 개최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드높아진 요즘, 먼저 다가가기 힘든 만큼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 간식이 제공되는데, 1주 차엔 하리보 젤리, 2주 차엔 프링글스 과자, 3주 차엔 초코에몽 음료수, 4주 차엔 빼빼로 과자가 제공되었다.

간식 덕분에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달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AGAIN, 1907! ③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신앙각성운동

기획 김형수 기자

격변의 시기,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일본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했고 나라의 운명은 그야말로 거센
바람 앞에 나약한 등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에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평양에서 타오른
성령의 불길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AGAIN, 1907! ③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신앙각성운동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19세기 후반 이래 몰아친 국가 위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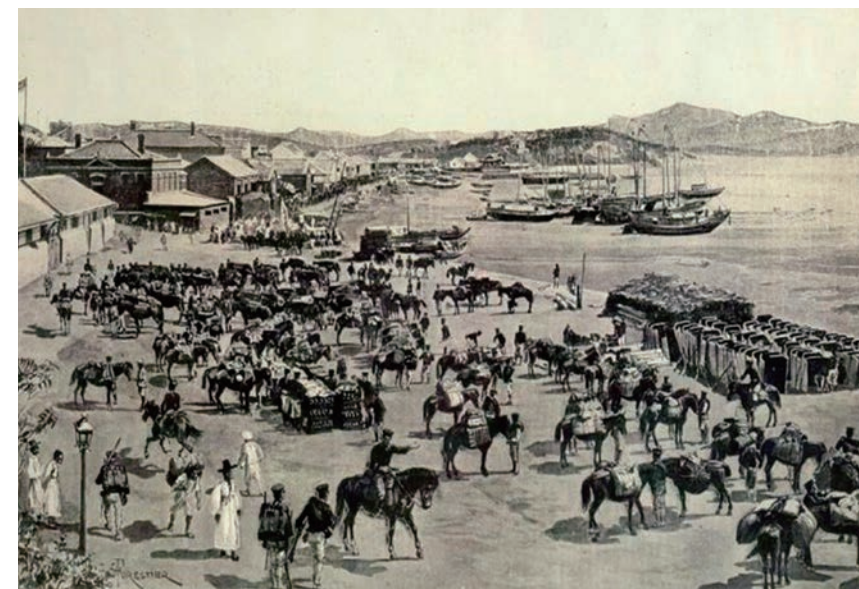
1894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조선) 일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작다고 깔보기까지 해온 왜국(倭國, 일본)이 대국(大國, 중국)을 군사력으로 눌러버린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백성들 스스로가 파악했다. 즉,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은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을 받아들인 명치유신(明治維新)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었다. 청일전쟁을 통해 서양의 막강한 힘을 어렵פות이나마 파악한 조선 백성들이 그 막강한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청일전쟁은 갑오농민전쟁·갑오개혁과 함께 조선이 근대로 전환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정치 권력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저지하고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었다. 그 세력을 끌어들인 명성황후를 일본이 무참하게 살해했다(을미사변, 1895).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황후의 남편인 고종황제가 거처를 러시아공관으로 옮겼다(아관파천, 1896). 이때부터 고종은 1년 동안 권력을 회복하면서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다(광무개혁(光武改革)). 고종황제의 지원으로 관민(官民) 공동의 근대화 운동단체인 ‘독립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했다. 나라의 이름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조선(대한제국)을 장악하려다 실패한 일본이 다시 이를 도모하려고 1900년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또 미국에게 도움을 구하여 동조를 얻었다. 이렇게 국제적인 공조를 이룬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와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다. 이번에도 일본이 -10년 전 청일전쟁에서처럼-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이겼다. 승전국 일본은 이제부터 한반도에서 일본 군대의 군사 활동을 인정하는 ‘한일의정서’를 대한제국과 체결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에게 주었던 모든

☞ 청일전쟁(1894년)



이권을 폐기해야만 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일본의 한반도 강점 1단계”가 시작되었다.

설상가상,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제국의 국가 권력 대부분이 일본의 통감부로 이양되었다. 그러자 이제까지 국가를 통치하던 황제의 힘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반전을 시도했다.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세계만방에 폭로하고자 했다.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황제는 이준·이상설 등을 그곳에 밀사로 파견해서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을사조약의 파기를 도모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리어, 이 사건을 빌미로 삼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친일파 관료들을 앞세워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켰다.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위기 상황, 기독교에서 발견한 소망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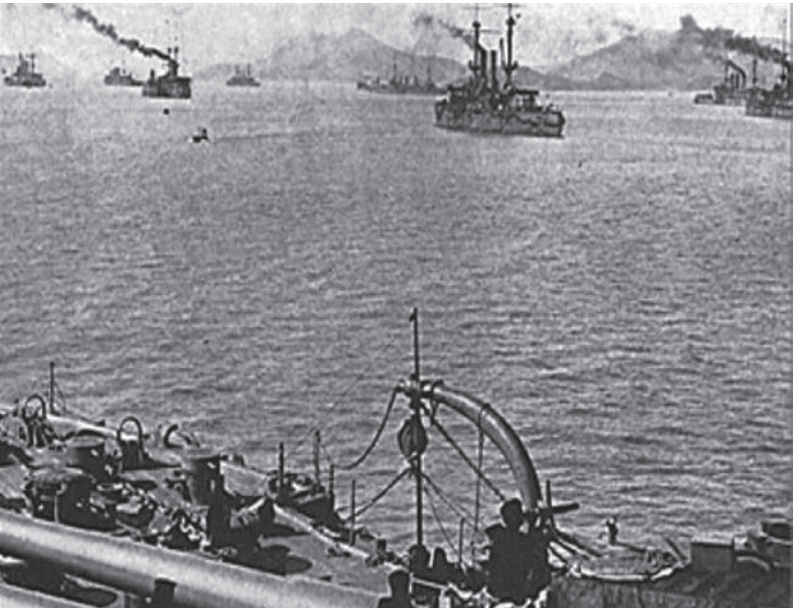
1904년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감리교의 정기간행물 『신학월보』(4권 8호: 1904. 8)의 논설은 한반도가 외국 군대들의 전쟁터가 된 서글픈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나라(조선)의 실낱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교회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이 논설은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어떤 길을 추구해야 하는지 밝혔는데,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사람의 길’이었다. 즉, 성경의 모세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람의 길은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영원한 복을 위하여 목전의 좋은 것을 물리치신 것인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치를 아는 자는 (오직) 예수교인뿐이요 이런 사정을 근심할 자도 (오직) 예수교인뿐”이라 보았다.

이와 함께 이 잡지의 논설은 “예수교인은 성경의 이치를 전국에 전파해서 (...) 나라와 동포를 구하는 길이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교화로써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음에 있는 줄로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수교인들이 2천만 잠자는 동포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수교인들이) 내 나라 내 동포의 건짐(구원)을 모른 채 하면서 제 영혼 하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잠자는 동포를 깨우치는 일’이 곧 대중의 의식을 각성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계몽 담론 안으로 깊이 들어온 기독교는 이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서호문답」(『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연재)에서 “지금 예수교로 종교를 삼는 영(국) 미(국) 법(국, 프랑스) 덕(국, 독일)의 진보된 영관이 어떠하뇨? 우리 동포들도 이것을 부러워하거든 그 나라들의 숭봉하는 종교를 좇을지니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조선(한국) 전통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가치 없다고 비판한 뒤, 예수교야말로 민족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주장했다.

✧1904년, 만주 러시아군 참호와 무기고, 변발을 한 청나라인이 난산 언덕에서 러시아 진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언더우드 촬영)



⚡러일전쟁(1904년)

건이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또한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상황에서, 1904년 한반도 러일전쟁 상황에서 발간된 감리교 정기간행물 『신학월보』의 논설을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① 『신학월보』에서는 “우리나라(조선)의 실낱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교회에 달려 있다.”고 했다. - 오늘의 교회 현주소에서 이를 반추하는 질문은, ‘지금의 교회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낱같은 혈맥으로서 소망의 등대 역할을 하는가?’
- ② 『신학월보』에서는 “성경의 모세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람의 길은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영원한 복을 위하여 목전에 좋은 것을 물리치신 것인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치를 아는 자는 (오직) 예수교인뿐이요 이런 사정을 근심할 자도 (오직) 예수교인뿐이다.”고 했다. -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반추하는 질문은, ‘지금의 교인/성도는 성경의 모세처럼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영원한 복을 위하여 목전에(당장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을 물리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 ③ 『신학월보』에서는 그 당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동포를 구하는 길은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교화로써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음에 있는 줄로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 오늘의 상황에서 이를 반추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이에 동반되는 분노와 절망이 법과 제도로 해결되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해소됨을 확신하고 있는가?’
- ④ 『신학월보』에서는 “(예수교인들이) 내 나라 내 동포의 건짐(구원)을 모른 채 하면서 제 영혼 하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 오늘 21세기의 한국 교회 성도를 향해 이를 반추하는 질문은, ‘지금의 교인/성도는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보살피며 예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나 혼자 편히 살다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신앙 각성은 각성하는 신앙 의식인데, 이와 더불어 생각과 마음의 개혁도 포함된다고 본다.

**‘잠자는 동포들을 깨우친’
1907년 신앙각성운동,
그리고 오늘**

1907년 평양 신앙각성운동은,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 깊이 잠든 신앙을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또, 이 신앙각성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잠든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게(각성케) 하는’ 신앙 운동이었다. 그 당시에 나날이 쇠퇴하여 몰락해가는 국가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여 극복하려는 의식운동이었다.

청일전쟁은 13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러일전쟁은 12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

◇ 거룩한빛예안교회는 매주 금요일 성도의 사업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경기 파주 운정 거룩한빛예안교회

글 김용기 기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지향

“온 세대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을 다음세대로 이어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운정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빛예안교회의 이병철 담임목사를 만났다. 거룩한빛운정교회의 분립 개척 1호인 거룩한빛예안교회는 지난해 12월에 분립 개척해 이제 막 2년 차를 맞고 있는 신생교회이다.

아직은 교회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방송 제작을 하는 스튜디오를 빌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성도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예배 처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바빠지면서 가족끼리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요즘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만나는 교회, 함께 만나 예배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병철 거룩한빛예안교회 담임목사

◇ 매주 수요일에는 그룹별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배운다



0~80세까지 온 세대가 드리는 통합예배

거룩한빛예안교회는 오전 11시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가 끝나면 식탁 교제를 하고 영유아와 초등, 청소년부, 장년부로 흩어져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분립개척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립 개척을 위해 준비 모임을 하며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의 하던 전통이 현재 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거룩한빛예안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이다. 예배 안내나 식당 봉사와 같은 사역으로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규칙을 정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을 사서 먹습니다. 비록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가 넘치지만,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예배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토양과 혁신을 추구하는 교회

단기간의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의 토양을 잘 가꾸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룩한빛예안교회

◇ 거룩한빛예안교회는 방송을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빌려 주일예배를 드린다



◇ 부활절 찬양 축제에서 온 세대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있다

는 교회 운영 면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시대 정신을 반영한 재정 규칙으로 교회 재정을 헌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성도의 헌금을 십일조와 감사, 목적, 주일헌금으로 분류해 목적에 맞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십일조는 구제 사역에, 감사헌금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주일헌금은 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헌금을 분류해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하며, 목회자와 장로, 위원장으로 구성된 집행부의 결정을 거쳐 헌금의 목적대로 사용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재정이 흘러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빛예안교회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식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교회의 1회기 운영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2회기의 운영 기간을 마치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정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쉼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안식년을 갖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와 운정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사역한 이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바쁘고 분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림으로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거룩한빛예안교회 기도 편지



≪ 새벽기도를 매일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

≪ 영유아 아이들의 즐거운 간식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기도 중에 주신 '예안교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2018년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되어 행정수도인 텔아비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던 중 ‘예안교회’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텔아비브에 세우려는 계획은 약 4년 후 거룩한빛예안교회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거룩한빛운정교회에서 분립한 거룩한빛예안교회는 자발적인 신청으로 최종 204명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남자 102명, 여자 102명으로 성비가 같고, 나이대별로는 10대 이하 11명, 10대 27명, 20대 23명, 30대 21명, 40대 26명, 50대 45명,

≪어르신 목장에 속한 교인들이 나들이에 나섰다



≪ 성도들이 나눔을 위해 내놓은 물품들로 예배 장소에서 바자회가 열렸다



≪ 초등부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별도의 자리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한다



60대 35명, 70대 11명, 80대 5명으로 모든 연령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모든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고자 주일 오전 예배는 온 세대 예배(세대 통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운정 3지구’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

2024년 표어는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눔 가운데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동시에 교육부 부서 모임(영유아부, 초등부)과 장년부 목장 모임(청소년부, 청년부 포함)을 진행하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새벽 기도회는(평일 오전 5시 30분)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단을 쌓고, 수요일 모임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으로 소그룹 나눔을 진행합니다. 금요일 저녁(8시 30분)에는 성경 공부(『레위기』 진행 중)를, 주일 오후(2시)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빛예안교회는 운정 3지구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운정 3지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빛예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성경의 원리로 운영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룩한빛예안교회 운정 3지구에 종교 부지 당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운정 3지구 종교 부지 11번(211평)에 당첨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건축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성드림학교 교육 철학 2 기독교 교육

글 김정준 (광성드림학교 교육)

광성드림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교육'이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교육의 주체로서 기독교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원리가 기독교적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하는 주체가 기독교 기관이기에 기독교 교육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주체가 명확한 기독교 기관이 아니더라도 원리가 기독교적이면 기독교 교육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성드림 학교는 세계관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지향합니다. 즉, 기독교 교육이라는 협소한 영역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기독교 교육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현 교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성도에게 기독교가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것처럼, 기독교 교육도 신앙교육이라는 일정한 영역을 넘어 모든 교육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육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세계관적 기독교 교육의 질문입니다.

한국 교육의 목표는 단연코 '입시'입니다. 입시를 향한 투자와 관심만 보아도 이런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입시 결과로서 인 서울(in seoul)을 원합니다. 서울 소재 상위 16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입시생 중에 상위 16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이 말은 학생 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입시를 통해 자신이 세계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자살 이유 1위가 성적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10% 정도만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크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대안학교로서 기독교 교육이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성장하여 곳곳에 쓰임 받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 광성드림학교 중도비전트립

매주 수요일 학생 주도 드림공동체 기도회

⌂ 학생 주도 공동체 기도회

지금껏 광성드림학교를 든든히 세워왔고, 또 앞으로 세워갈 힘. 그것은 바로 '주체성'이 아닐까?!

광성드림학교에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며 교육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각자 주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학생·학부모, 세겹줄의 힘!

매주 수요일 아침은 광성드림중·고등학교의 정규 예배 시간으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준비, 인도하고 교목인 김정준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5월 1일 수요일 아침. 여느 때 같았으면 교사와 학생들이 앉으면 놀아있던 뒷자리가 학부모들로 채워졌다. '부흥, 쇠퇴하였던 것이 일어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생 주도 드림공동체 기도회> 때문이었다. 고3인 12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기도회의 모든 과정이 학생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찬양 인도부터 간증, 기도회 인도까지 학생들이 고민하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신요한 학생(광성드림 12학년)을 통해 직접 들어보았다.

Q) 학생 주도 드림공동체 기도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

저희는 각자 소속된 교회에서 진행된 동계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섬김의 자리에서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누고 기도회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학생 주도 드림공동체 기도회를 준비하며 느꼈던 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처음 주셨던 마음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마음보다 기도회 자체를 잘하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외부적인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체가 되어 인위적으로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스며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저희는 부흥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번 드림 공동체 기도회를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 학생 주도 공동체 기도회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글 광성드림 기독교학부모교실팀

광성드림 기독교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의, 학부모들에 의한, 학부모들을 위한 광성드림학교의 대표적인 학부모 교육과정**입니다. 원래 기독교학부모교실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활동입니다. 그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몇몇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광성드림 기독교학부모교실>이란 이름으로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13기까지 수료를 마쳤습니다.

광성드림 기독교학부모교실에는 전문 강사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기독교학부모교실 교재를 함께 연구하고 강의하며 자신들의 삶을 나눕니다. 자녀를 잘 키운 학부모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삶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교육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부모가 함께 성장해 가는 시간입니다. 기독교학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하며 함께 연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던 코로나 시기, 기독교학부모교실은 더욱 활발하게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임의 특성 덕분에 광성드림 학부모뿐 아니라 타 학교의 학부모들과도 연대가 가능해졌고 교육의 3주체가 학교, 학생, 학부모이며 부모가 교육과 신앙의 주체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학부모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학부모'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내 아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 더 나아가 이 땅의 아이들과 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 외칩니다.

기독교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나는 기독교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 기독교학부모교실

⋈ 기독교학부모교실

아버지의 축복권을 교실로!

글 한주현(졸업생 학부모)

✧ 아버지들의 교실 축복 기도



‘교실축복기도여행’은 광성드림학교 아버지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처음 시작된 2016년 당시 광성드림 제 1기 아버지학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모아져 토요일 아침 7시에 매주 한 반씩 교실을 돌아가며 아이들 책상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故 김효성 형제님의 제안으로 저와 둘이 시작하여 이후 두세 명, 서너 명으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화요학부모신앙교육’과 ‘기독교학부모교실’ 등을 참여하며 학교와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이며 그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들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실 문이 닫혀있는 방학 중에는 운동장을 돌며 기도합니다.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오산리 기도원 산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는 말씀처럼

모든 순간 우리 아버지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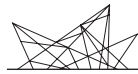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들 안에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리더가 있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멋진 리더였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8년간 아버지들의 교실축복기도여행은 단 한 순간도 멈춤 없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졸업하여 광성드림 학교를 떠나면서 단 두세 명일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길 기도했는데 이제는 매주 20~30명의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놀랐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교실에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묵상과 나눔, 그리고 모든 아이를 내 자식으로 품는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아버지들의 교실 축복 기도

⋈ 아버지들의 교실 축복 기도



캠프카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행복이 다섯 배, 오문천 집사님 맥

글 우주희 기자

다섯 임금의 어머니

어린이날을 앞둔 어느 날, 다섯 아들의 엄마인 오문천 집사님을 만났다.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수줍게 웃고는 '다섯 아이를 키우는 오문천'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무엇이든 다섯 배! 대단한 노력과 정성이 아닐 수가 없다.

문천 집사님은 처음부터 다섯을 낳으려고 계획했던 걸까? 남편인 오지환 집사님과는 광성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사이다. 두 분이 결혼 전부터 다섯 자녀를 낳자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다 보니 어느덧 다섯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고 한다.

첫째인 시후(10)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둘째인 연후(9)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셋째인 건후(7)는 하나님을 세우는 자, 넷째인 윤후(5)는 하나님의 은혜, 돌을 앞둔 막내 정후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돌림자인 후는 임금님이라는 뜻이다. 아이를 낳은 후 조리원에서 부부가 함께 한 자를 찾아가며 아이들에게 각각 어울리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다고 한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모두 자기 이름 뜻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성적 성향인 첫째와 셋째가 닳았고 또 감성적 성향인 둘째와 넷째가 서로 닳았다. 돌쟁이 막내는 둘 중 어느 노선으로 자라갈지, 혹은 독자 노선을 개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천 집사님의 하루

아침부터 분주히 식사를 준비하고 먹여서 첫째와 둘째를 학교에 보내고, 셋째와 넷째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막내의 이유식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중간중간 집안일을 하다 막내가 낮잠을 잘 때 함께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면 또 막내에게 점심을 먹인다. 문천 집사님의 첫 끼니는 2~3시 정도일 때가 많다. 식사 후 첫째가 귀가하면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셋째와 넷째도 귀가한다. 이육고 축구를 마치고 돌아온 둘째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면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식사가 마무리되는 7시 무렵부터는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한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는 첫째 시후는 항상 고맙다. 자유로운 영혼, 둘째 연후는 숙제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 거라며 버틴다. 요즘

독수리 5형제



에는 한글을 익히는 셋째 건후에게 손이 많이 간다. 건후 공부를 봐주면 막내 정후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매달린다. 막내는 형아 머리끄덩이를 붙잡기도 한다. 넷째 윤후는 형들 다 공부하는데 자기는 누구랑 노냐며 하소연하다 괜스레 시비를 걸어대는 막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막내는 일단 뭐가 됐든 잡아 뜯고 본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의 귀가는 이르면 8~9시지만 늦으면 10~11시 정도가 되기도 한다. 10시 무렵,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남편과 야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달콤한 육퇴(육아 퇴근) 후 시간은 매우 짧다. 잠들고 눈을 뜨면 다시 또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

삶의 가장 큰 행복

다섯이나 되는 아들과 지내다 보니 여러모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중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몸이 아플 때라고 한다. 문천 집사님이 아플 때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이들 경우에는 다섯이나 모여 지내다 보니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가 아프고 나오면 다음, 또 다음이 아픈 경우가 많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앓는 장기전에 돌입하면 오랜 시간 간호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함이 더 크다. 남편인 지환 집사님은 워낙 바쁘니 오랜 시간을 놀아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 번 놀 때 확실하게 놀아준다. 아직 어린 막내를 빼더라도 다섯이나 되는 남자들이 팀을 짜서 신나게 논다. 아이들이 그 순간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지켜보는 문천 집사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문천 집사님은 그 순간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가족 스티커 사진

하나님 나라 애국자

애초에 애국하려고 다섯을 낳은 것은 아니기에 애국자라는 칭찬은 부담스럽다고 한다. 예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르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다고 겸손한 말씀을 하지만 무엇이든 다섯 배로 노력하고 애쓰는 집사님께 존경을 담아 박수를 보낸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더욱 잘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는 문천 집사님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고 계시길 바란다. 남편 지환 집사님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기업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막내 정후가 좋은 어린이집과 선생님 만나 잘 적응해나가길, 가족 모두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 제목을 전해주셨다. 『겨자씨』 독자님들께서도 귀여운 5형제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이기심, 아담 스미스의 ‘자기애’와 황금률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발전 전공)

아담 스미스(Adam Smith).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 그리고 철과 불을 다루는 ‘대장장이’에서 유래한 스미스. 둘 다 너무도 익숙한 낱말까. 왠지 친숙하여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봤을 직한 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도 그에 대해, 그리고 그의 저작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1723년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가의 소읍(小邑) 커쿨디에서 태어난 아담 스미스는 1751년 모교인 글래스고대의 논리학 교수로 임용되어 이듬해 도덕철학 교수로 부임한 뒤, 1759년 『도덕감정론(도덕정서론)』을 집필한다. 그러다 그는 돌연 젊은 버클루 공작(Duke of Buckleuch)의 개인 교사로 약 2년간 유럽 전역을 여행하는 그랑투어(Grand Tour)를 선택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담 스미스는, 『프린키피아』로 알려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집필한 ‘근대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과 함께 인류사에 있어 그 영향이 지대한 인물이다.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3가지 사건, 미국의 독립선언(정치혁명),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상용화(산업혁명)가 일어난 1776년, 학문의 영역에서 아담 스미스는 그의 ‘그랑투어’ 후 경험과 연구를 집대성한 『국부론』을 출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대한 오해는 매우 뿌리 깊다.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18세기 중후반 막스 베버 등 대학자들을 배출한 독일의 역사학파(Historical School of Economics)에서 시작되었다. 도덕철학자 아담 스미스가 1759년 『도덕정서론』에서 설파한 ‘공감’의 중요성과 그가 그랑투어 후 집필한 『국부론』에서의 ‘사익 추구’의 중요성이 서로 창과 방패, 즉 모순(矛盾)이 아니냐는 ‘아담 스미스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19세기 이후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독재·전체주의의 사상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경제 부문의 사상적 아버지가 아담 스미스로 알려져 있기에 이러한 논

쟁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중등교육, 하물며 대학에서도, 나아가 (대부분 경제사·경제철학 전공이 아니기에) 경제학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저작에서도 아담 스미스 사상이 정확히 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이기심’과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백여 년 동안 『국부론』이 언급되거나 강의·연구되는 경우, 다음 구절이 빈번히 인용된다.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 정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라 ... 그들의 자기애(self-love)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국부론』 1권 2장)

대부분은 바로 위 구절에서 ‘자기애’를 ‘이기심’으로 오역해 왔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맞지만 바로 이 사랑의 상호적 바탕이 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애’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철학에서부터 중세 기독교 스콜라철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프랑스의 루소,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정서학파에 이르기까지 오랜 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부론』은 전체 5권으로 구성되어 분량이 약 1천 쪽에 달하였기에, 그 분량이나 내용이 일반 시민들이 읽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다. 가격 역시 1.16파운드로 당시 노동자의 주당 급여가 10실링(1/2파운드) 내외일 정도인 상황에서 후대에 ‘자본주의의 수호성인’으로까지 비유되는 아담 스미스의 책을 기꺼이 사서 읽어볼 여력이 있는 노동자는 아마도 드물었을 것이다.

중세의 막바지 대항해 시대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중심으로 잉태된 자본주의,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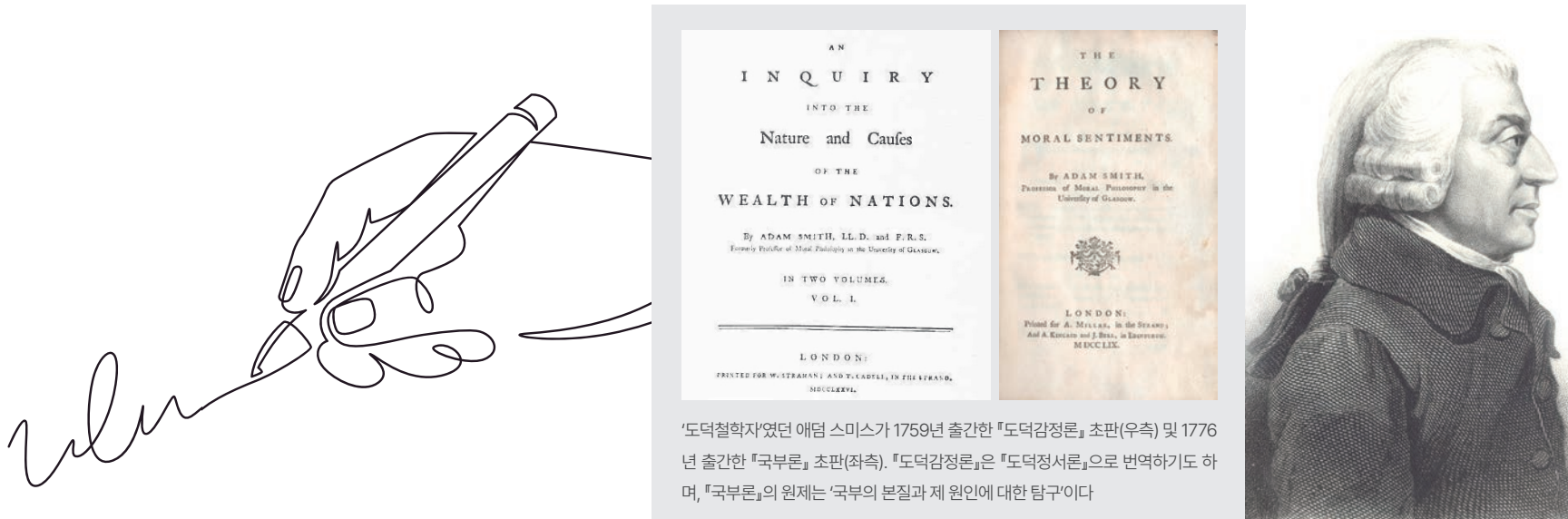
연방 제국의 심장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확대된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이들에게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책인 『국부론』을 읽어볼 시간적 여유는 현실적으로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이르면 4세부터 노동에 투입되어 어두운 굴뚝이나 탄광의 갱도를 기며 15시간 가까이 노동해야 했던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당시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후에 젠틀맨(젠트리), 즉 ‘신사’로 알려지게 된 신흥자본가들은 아담 스미스의 ‘자기애’를 ‘이기심’으로 오해하고 그 사상을 열렬히 환영하고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현재까지도 국내외에 걸쳐 역사적으로 자명하다. 국내적으론 경성제대에서부터 아담 스미스를 연구한 최호진 교수와 제자 중앙대 정해동 교수가 1950년대 이후 번역한 『국부론』(범우사)에서는 그나마 ‘자애심’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이후 출간된 번역서들의 오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현재 간단한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통해 만연한 오역 또는 오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 스스로, 『국부론』 3권 6장에서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22장 37~39절을 인용하며 **“이웃을 자신만큼 사랑하면서 그만큼 자신도 사랑(love our neighbor as we love ourselves; and we love ourselves surely for our own sakes)”**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의 ‘자기애’ 사상이, 2백여 년 이상 ‘이기심’으로 오인되어 온 것이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 역시, 그의 다른 저작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계망(chain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사회를 조율하

는 보이지 않는 섭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손해에 대한 공감(共感, sympathy)이 가능한 경제참여자들의 도덕적 경제행위에 의해 결국 조화와 균형이 상호호혜적으로 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타인의 작은 기쁨에는 공감 하면서도 타인의 큰 기쁨에는 공감 못 하는 반면, 타인의 작은 슬픔에는 공감 못하면서 큰 슬픔에서야 비로소 공감하곤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을 바로 3단계의 ‘자기애’ 중, 인류가 경제발전과 함께 지향해야 할 궁극적 자세로 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국부론』 3권 6장 등에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드러나는 ‘황금률’ 즉,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기심’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확히 3번 언급한 데에서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혁신’(innovation)과 함께 현대 사회의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이끌어 낸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그러나 이 이면에 자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의 시민들이 ‘이기심’에 관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도나도 사익을 이기심에 따라 추구해도 공익이 달성될 것”이라는 심각한 오해가 현재까지도 세계 전역에 상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 및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자유(自由)를 ‘남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이기적일 자유’로 오해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각계 리더들의 역할일지 자문하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도덕철학자’였던 애덤 스미스가 1759년 출간한 『도덕감정론』 초판(우측) 및 1776년 출간한 『국부론』 초판(좌측). 『도덕감정론』은 『도덕정서론』으로 번역하기도 하며, 『국부론』의 원제는 ‘국부의 본질과 제 원인에 대한 탐구’이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기획 김형수 기자

1. 김종인 목사님은 오동곤 장로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얼떨결에 『겨자씨』의 ‘고맙습니다’ 릴레이 대상이 되고 나서 다음 주자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온 후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고마웠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차분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어느 분 하나, 고맙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은 물론이고 교구와 각 부서 장로님, 권사님 등 성도님들 모두에게 끊임없는 친절과 도움, 호의와 나눔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는 베풀고 헌신하는 직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베풀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늘 주위 분들에게 베풀고 헌신을 선물로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그동안 받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갚으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고마운 분들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단 한 분만 소개해 달라고 해서 대표로 8교구 목양 장로로 섬기고 계신 오동곤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장로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따뜻한 웃음으로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며,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교구 행사 때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서 헌신해주시고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주시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꼭 물어봐 주십니다. 최근 헤어스타일을 바꾸시곤 10년은 더 젊어진 멋진 오동곤 장로님, 앞으로도 더 강건하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오동곤 장로님은 이영희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고마움을 표해주신 김종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겨자씨』에서 제게 그동안 고마웠던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했지만 한 분만 소개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다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제가 오히려 본받아야 할 정도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송경민 권사님, 나수정 권사님, 최미경 권사님, 김미연 권사님, 송인순 권사님 등, 부족한 제가 목양 장로로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 열심히 기도해주시는 우리 교구 권사님들 모두 다 소개하고 싶었는데 단 한 분만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딱 한 분만 소개해야 한다고 하니 다른 권사님들께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구 5지구장이신 이영희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희



⌕ 김종인 목사와 오동곤 장로



⌕ 오동곤 장로와 이영희 권사

권사님은 지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부탁하면 언제든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십니다. 워낙 바쁘게 지내는 걸 잘 아는 터라 저희 장로회 봉헌송 때 부탁하기가 참 미안했는데 한 장로님이 말씀을 꺼내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달려오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영희 권사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3. 이영희 권사님은 허훈 장로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7년 전 허훈 장로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 딸에게 제자훈련을 해주시면서 장로님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장로님 덕분에 딸보다 엄마인 제가 더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 후 최근까지도 장로님께서 딸에게 격려를 보내시고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장로님의 기도문은 한 번 읽고 그냥 덮을 수 없을 만큼 참 따듯합니다. 우리 모녀는 몇 번을 곱씹어 읽으며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곤 합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친정 부모님 구원이 제겐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곧’이라는 응답을 주셔서 굳게 마음먹고 D-day를 정했습니다. ‘기필코 이날엔 복음을 전하리라.’ 했지만 자꾸만 과거 무서웠던 아버지 기억이 떠올라 주눅이 들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구 목양 장로이기도 하셨던 허훈 장로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기도 편지가 아닌 한 통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자신도 믿음의 1세대이며 장로님 부친은 유교 학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부친이 병환으로 입원 중일 때 ‘아버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갈 길과 아들인 제 갈 길이 다릅니다. 이 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짧고 강력하게 진심을 전하자 부친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권사님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주시며 저를 위해, 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제 부모님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저를 위해 이미 2주나 금식 기도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2주 더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평평 울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인 제가 뭐라고 한 달을 금식 기도하신다는 건지, 건강을 잃으시면 어쩌려고. 염치도 없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다. 부모님 영원 구원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D-day,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저는 친정 부모님께 예전에 장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짧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절, 세례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제일 먼저 허훈 장로님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며 닮고 싶은 멘토십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4. 허훈 장로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가을호로 이어집니다.



⌕ 이영희 권사와 허훈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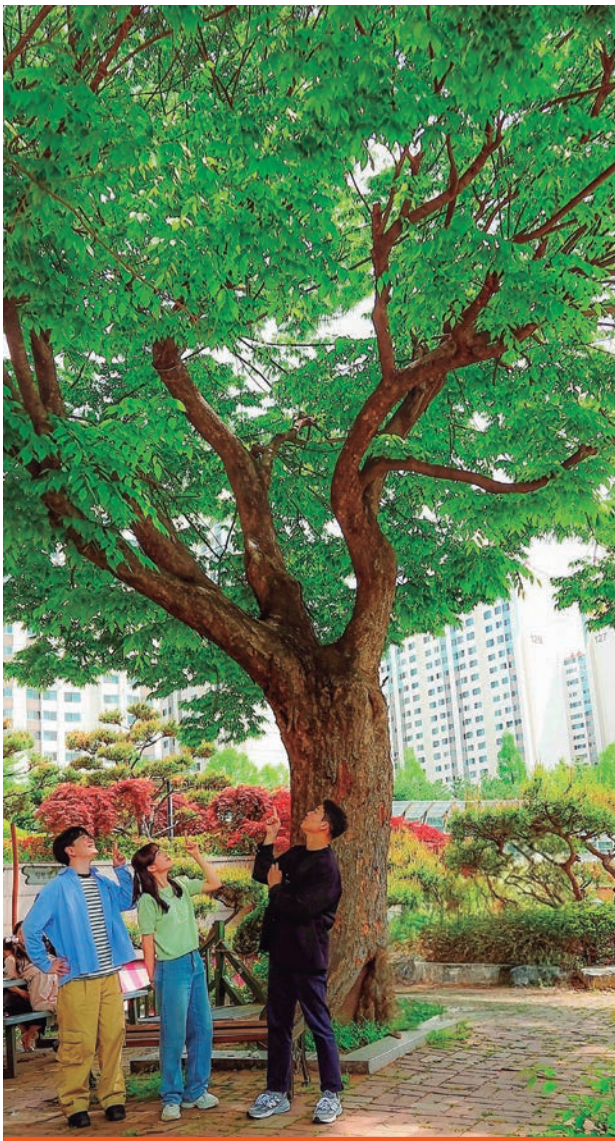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다 가시는 건 어떨까요

교회 곳곳, 아름다운 장소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사진 이종수 기자

카테고리 : 인물

여러분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 보세요.



장소 | 교회 옆쪽 나무
촬영 방법 | 파노라마
시간 | 오후 1시 30분



장소 | 교회 옆쪽 나무
촬영 방법 | 인물사진 모드
시간 | 오후 1시



장소 | 교회 옆쪽 나무
촬영 방법 | 인물사진 모드
시간 |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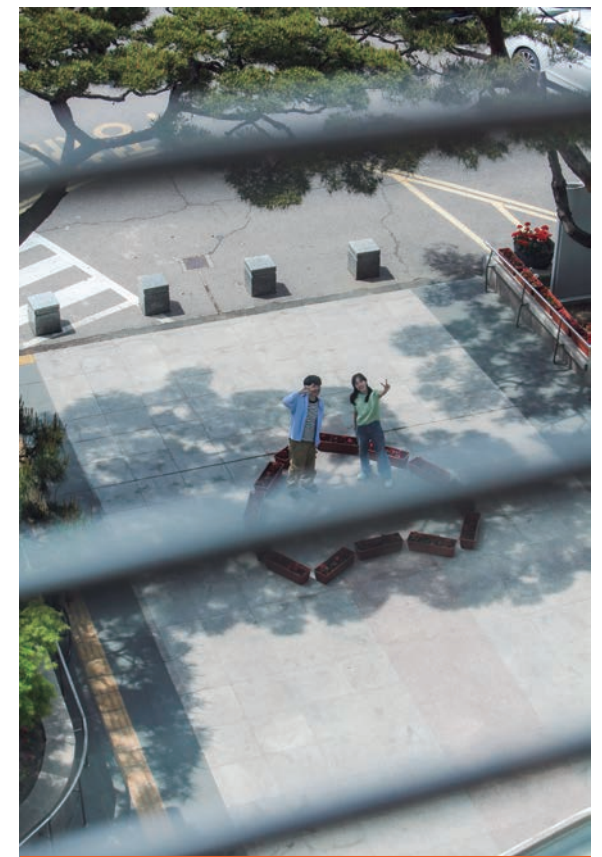
장소 | 교회 뒤쪽 철길 건널목
시간 | 오후 1시



장소 | 야외 주차장 옆 벤치
시간 |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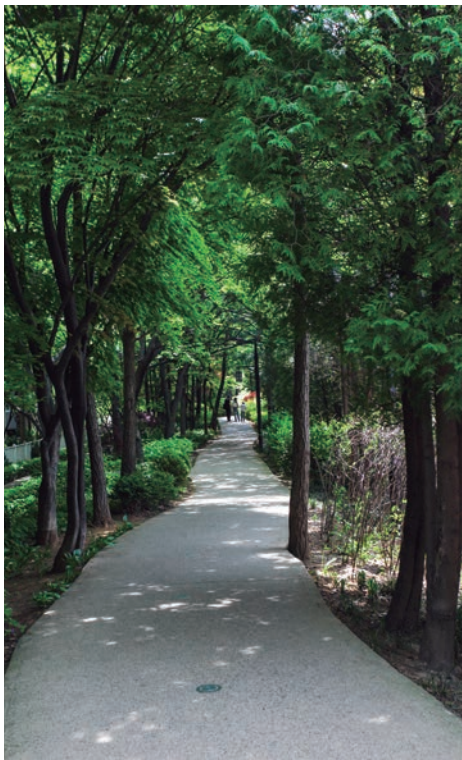
장소 | 교회 돌계단
촬영 방법 | 인물사진 모드
시간 | 오후 1시



장소 | 교회 4층
시간 | 오후 1시

카테고리 : 장소

여기서 찍으시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소 | 교회 뒤쪽 숲길
시간 | 오후 1시

장소 | 교회 뒤쪽 철길 건너는 다리
시간 |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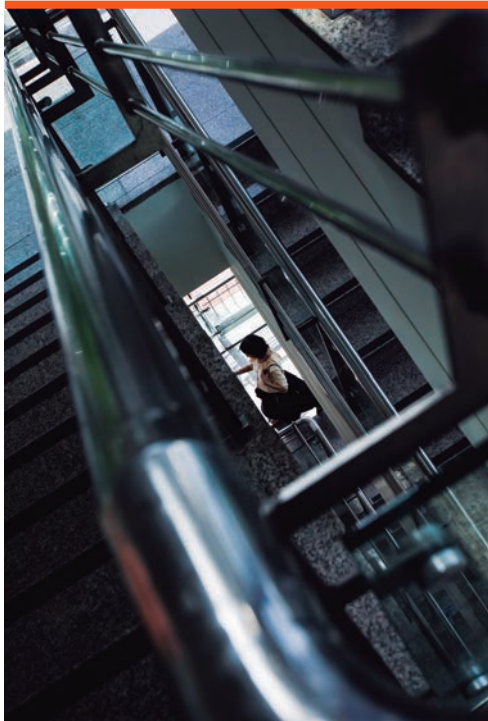


장소 | 교회 뒤쪽 철길 건너는 다리
시간 | 오후 1시



장소 | 교회 식당 쪽 분수 정원
시간 | 오후 1시

장소 | 교회 4층 계단
시간 | 오후 1시



청년광장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ksn



BIT 크루

글 김다빈 청년기자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함을 보시고 부활절 퍼레이드에 BIT 크루로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대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며, 노래의 가사처럼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 한 분만 높여 드릴 수 있어 정말 다윗과 같이 행복해하며 기뻐 춤쳤습니다.”

- BIT 크루 인터뷰 중 -

“당시 무대가 생방송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긴장했을텐데, 올라가기 전에 팀원 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구요. 왜 이 일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춤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하는지를 청년들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차선우 목사 인터뷰 중 -

지난 4월, 광화문에서 CTS 기독교 방송 주관으로 개최된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BIT 크루’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년들은 약 1만 5천여 명 앞에서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각자의 삶을 살아내며 곳곳에서 모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겨자씨 청년부 기자입니다. BIT 크루 결성에 목사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우 목사 안녕하세요 BIT 크루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차선우 목사입니다. 작년이이었을까요, 이에림 청년을 심방하던 날이었는데요. 대학교에서 댄스팀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때를 추억하며, 다시 한 번 그 열정과 마음을 한번 더 느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단순히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게 첫 출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후 우연히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 부활절 퍼레이드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죠. 순간 이에림 청년과의 대화가 떠올랐고, 사실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댄스팀 출연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이미 출연이 확정됐지만 함께할 팀원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민하던 중, 마침 우리 교회 성탄절 행사에 참여해 춤을 추는 김민서 청년에게 조용히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고, 김민서 청년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모여 마침내 BIT 크루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우연이네요! 또한 청년들과 전심으로 소통하며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차선우 목사님의 태도가 참 감명 깊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연습 과정부터 무대 직전의 모습까지 크루원들에게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BIT 크루 활동을 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성희 저희는 주말마다 모여 3시간 가까이 연습했어요. 매번 연습 때는 땀범벅에 초체한 모습이다가, 주일만 되면 다들 화사하고 예쁘게 나타나서 볼 때마다 너무 다르다고 웃었던 것이 생 각나네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에는 연습이 너무 힘들어서 곧 주말에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즐거워했는데, 막상 무대가 끝나니 깊은 여운이 남더라구요. 아쉬운 점도 많았고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멋있게 했을텐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에림 격한 안무로 안 쓰던 근육을 갑작스레 사용하게 되어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간 나머지 정형외과를 가게 되었던 일입니다. 대학생 때까지 워십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취업 이후 춤을 춘 적이 없어 근육이 다소 굳어있었던 것 같아요. BIT 크루 준비 기간 동안 동작을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세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오른쪽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야구선수나 택배업을 하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이라며, SLAP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무대 전, 하나님께 통증을 가라앉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쪽 어깨를 온전히 붙들어주셔서 춤으로 영광을 돌리는 동안 통증도 없이 동작과 가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BIT 크루 활동은 어떤 의미였나요?

김소망 BIT 크루 활동은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새로운 직장 과 대학원 첫 학기를 앞두고 있었기에 춤 연습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가 정말 고민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연했던 노래 비와이의 '힘'처럼, 제게는 여호와의 힘만을 찬양하는 가사가 과정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 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내 역량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던 시기에, 눈에 보이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앞으로의 시즌도 해내게 해줄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민서 BIT 크루는 청년 공동체 생활의 기쁨을 알게 해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작년부터 봉사하고 있는데, 청년부보다 먼저 함께한 교사 공동체가 익숙해서인지 항상 청년부보다 중등부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셀 모임을 할 때 친한 사람이 없으면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엔 언니, 동생들과 같이 지내며 청년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BIT 크루와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제2의 BIT 크루를 꿈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유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크루원들과의 끈끈해짐을 느낄 수 있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향 걱정은 집어넣고 시작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크루를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배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BIT 크루 경험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김민서 소중한 인연들과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소망 하나님의 '힘'으로 뚫어 낸 짜릿한 '도전기'

이유빈 땀과 열정으로 빛났던 하나님의 크루

이에림 BIT 크루 경험은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나에게 주신 한 여름 밤의 꿈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고, 이 기억과 추억을 꺼낼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주향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하다~!

조성희 삶이 뱉어 나의 Amen!

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만난 프로그래밍 교육 기획자가 느낀 것

글 김요한(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실제 교육 과정 현장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사람들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딩, 인공지능, 챗GPT 등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을 우리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일자리는 변화 또는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새로 떠오르는 직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요즘 많은 사람들은 커리어 전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디지털 분야로의 직무 전환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

웹, 서버,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기획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학습 고민을 상담도 하고 진로를 같이 찾아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부터 늦은 나이에 커리어 전환에 도전하는 40대까지,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고 커리어 전환을 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딩이 어려워 중간에 울면서 그만두시는 분, '수료 이후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수업에 집중 못하는 분. 작게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내가 할 수 있을지.' 일을 처음 시작하며 만난 수강생분들이나 지금 만나고 있는 수강생분들 모두 동일한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언제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유망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시작했고 운이 좋아 적성에 잘 맞아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교육 이후에 원래 직무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 과정 행사(데모데이) 현장



천 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하며 제가 찾은 정답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일단 아무거나 시작해 보자.'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에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주변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우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수료식 마지막 인사

우리 부부의 사랑 이야기 들려 드립니다

글 전중배, 최슬기 부부

연애 시절

제주도 여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 차 전중배, 최슬기 부부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코너에 저희 부부가 소개된다고 하니 설레는데요, 저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저희는 이렇게 만났어요.

남편을 처음 봤던 순간은 제 막냇동생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어요. 그때 남편은 막냇동생의 고등부 선생님과 동시에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었죠. 그때 저희는 안양에 있는 석수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외모가 제 이상형에 매우 가까웠고 굼직한 목소리와 남자다운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성가대 반주를 마치고 청년부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주일 봉사를 마치고마자 집으로 가서 바로 쉬곤 했는데 남편을 보고 난 이후 청년부 예배를 매주 참석하기 시작했죠. 마침 막냇동생이 청년부 형제와 교제 중이었고 그 형제는 제가 좋아하게 된 남편과 매우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 이후 동생에게 연락처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연락하게 되었어요. 마침 남편도 친한 동생을 통해 제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교대역에서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는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 만나볼래?”에 망설임 없이 저는 “응!”이라고 대답했죠. 그날이 우리의 1일이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부끄))

♡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연, 저희는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연애 5년 동안 저희는 서로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와 사랑,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 큐티를 꾸준히 해왔죠.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카톡으로 늘 말씀을 주고받으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신앙적 고민도 서로 나누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고 확신했어요.

저희 둘은 석사과정을 순조롭게 잘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남편은 취업 준비를 위해 1년간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죠. 그때가 연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1년 동안의 대전 생활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수많은 시험과 면접. 하지만 서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1년의 대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회사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의 프로포즈까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보면 둘 다 가치관이나 취향이 닮았는데요. 저희 두 사람은 정리 정돈된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이나 영화를 즐기는 집들이, 집순이예요.

서로가 닮은 점도 많지만 성향은 차이가 있어서 가끔은 표현을 잘 안 해주는 남편으로 인해 서운한 점도 있었어요. 표현을 많이 하는 음대 아내와 무뎡뎡한 공대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닮은 점도 많고 또 조금 다른 점은 채워줄 수 있는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 결혼 생활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건강에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죠. 수술 당일엔 아내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어 수술을 연기해야 했어요. 코로나에 걸리고 수술까지 연기가 되어서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연기된 수술 날짜까지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에도 코로나 시기라 보호자가 상주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만 면회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에는 1인실 병동으로 옮겨져서 상주하며 함께 했어요. 이 시기에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속에 저희 부부도 기도할 힘을 얻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부 찬양대(임마누엘)를 섬기고 있어요. 아내는 피아노 반주자로, 저는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어요.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저는 청년부 때 열심히 찬양대를 섬겼던 경험을 기반으로 부부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그날 불렀던 찬양을 다시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찬양 중에는 좋은 소리를 내는 데 집중하느라 놓쳤던 은혜의 순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저희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만 3년 동안 계속 기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음을 믿으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저희 부부가 지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상 나눔집



임마누엘 찬양대



아내 연주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여정

글 임은지(청년부 비저너리 찬양팀 / 배우 & 티칭아티스트)



» 공연 Special Processed American Me의 한 장면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처음 왔던 날이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여느 첫 순간이 그렇듯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2층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청년부 생활은, 저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만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한 후 넓은 세상에서 학문의 시야를 넓히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정에서 장녀로 자란 저에게 미국 유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새벽기도도 매일 나가고,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시간을 오래 보내며 간절히 구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인지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아갈 용기를 주시며 마음의 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2018년, 겁 없이 미국의 유명한 연기 석사프로그램(M.F.A.) 오디션을 지원했고, 콜백(Callback)을 받은 학교 중에서 입학을 결정했던 학교가 바로 '메소드 연기'의 본고장 액터스 스튜디오(Actors Studio)가 설립한, 미국 뉴욕의 '액터스 스튜디오 드

라마스쿨(Actors Studio Drama School at Pace University)'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 제가 넘어야 할 재정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학비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고 우리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웠기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울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항상 함께했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청년부 임원단과 비저너리 찬양팀이었습니다. 임원과 찬양팀의 싱어로 섬기고 있던 저는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의 눈물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고, 기도해 주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저는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며 새 힘을 얻어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선물 같은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저의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께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큰 손녀의 믿음을 응원해 주고 싶다.'고 하시며 입학금 일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할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용기를 얻어 저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눈물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된 여정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과 재단, 학교 기관들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저 또한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과 병행했었는데요, 레스토랑 서버, 카페 바리스타, 학교 극장 직원, 베이비시터 등등... 수업 후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힘겨워 길거리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장학생으로 받게 되었던 우리 교회의 장학금 또한 저에게 희망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 믿음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함으로 바꾸어주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학비와 미국에서의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2021년 5월, 여러 후원과 사랑 덕분에 저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이후, 저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인 배우로서 알려지며 다양한 작품들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들을 마주하며 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배우로서 좋은 작품들로 세계의 다양한 관객들을 만났고 예술인으로서 누리고 배우며 더 큰 꿈을 꾸고 성장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고난과 외로운 시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버틸 수 있었고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FOUNT NYC)의 공동체로부터 받은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찬양팀 싱어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좋은 친구들로 인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견고히 다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저에게 보내주신 용감한 비저너리 찬양팀 멤버들

그리고 작년, 비자 문제로 인해 갑작스레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입국이었기에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길을 잃

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도 작년 여름, 세계적인 공연 축제인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에 코리아시즌의 작품으로 초청받은 작품에 배우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경험과 또 다른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의 공연예술과 관객들을 만나며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정말 넓으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국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고등부와 청년부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연기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에 대해 모르던 친구들도 제가 사랑하는 일을 열린 마음과 사랑으로 배우면서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모습을 보며, 나눔으로써 더 커지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며 오히려 다시 큰 사랑으로 돌아나 부메랑처럼 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꿈은 문화예술선교사가 되어 공연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공연예술을 통해 교육하고 치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저도 이뤘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되어준, 유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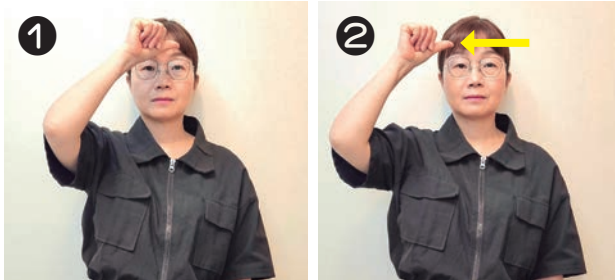
현재 저는 예술 그룹 '드리마(DREAMA)'를 설립하여 배우이자 가르치는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겸손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 28:7>"라는 말씀처럼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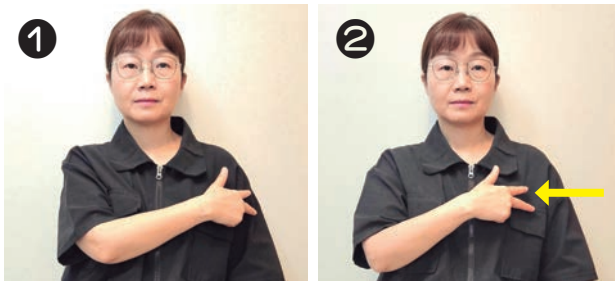
수어통역 장현정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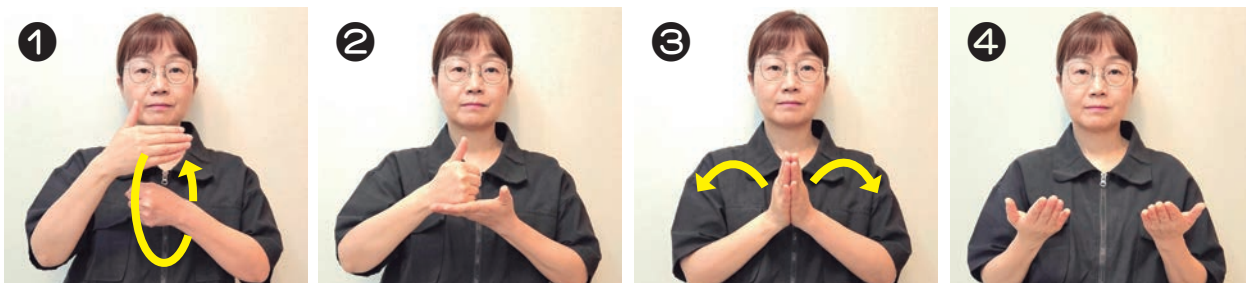


집사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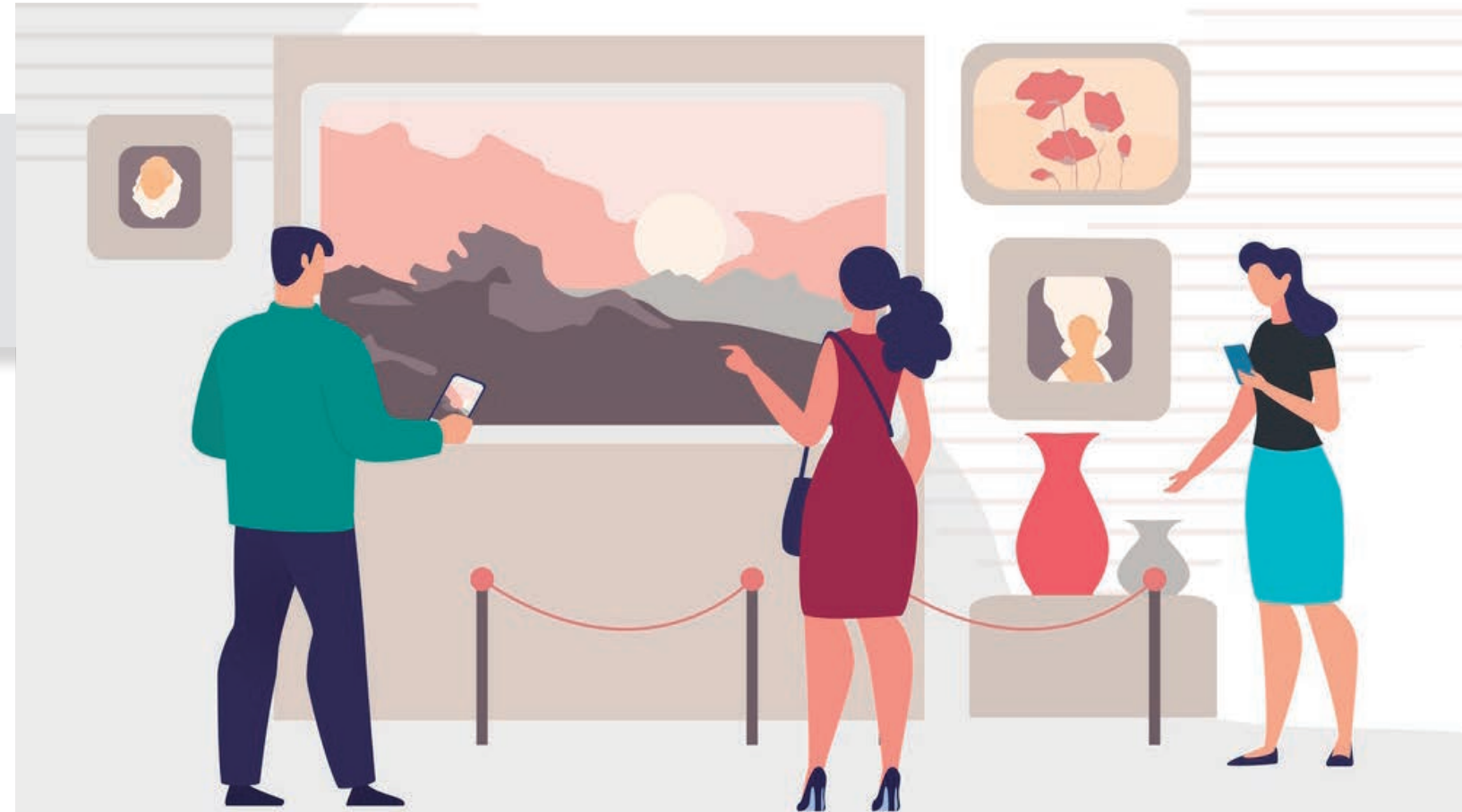
성경



찬송가



문화 & 독자 마당



物の 꿈



구정선

작품정보

물의 꿈, 50X50cm, 종이에 석채, 자개, 2024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 대학 석·박사 졸업
개인전 7회 및 홍콩·싱가폴·부산·서울 아트페어, 단체전 등
교육경력 2010~2011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대학원 출강
논문 「朝鮮民畵의 꽃 그림 연구」, 「遊藝의 想像과 그 표현 연구」

작가 노트

연초에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서양미술, 공예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 작가들과 함께하는 교류전이 있었다. 이 전시에 '시가 그림이 될 때'라는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옛 그림에는 시와 글씨를 그림과 함께 표현하는 방식인 시서화(詩書畵)라는 화론 양식이 있었다. 전통적인 서양 회화 장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미술에서는 그림에 들어가는 글씨도 회화적인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예술의 표현 방식 중에 시와 글씨는 회화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표현 가능성의 모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청나라 건륭황제 때, 시(詩) 한 절 중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꽃이 만원정에 향기로우리 花香滿園亭
정원이 꽃향기로 가득하구나 亭園滿香花

글자 배열을 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시가 되는 언어유희의 양식, 즉 '회문체' 형식의 시이다. 시를 통하여 자연의 감흥을 노래하는 것 이상의 시각적인 문체의 유희성이 표출되는 양식이다. 꽃의 상징성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의 모래알에서조차 우주를 탐지해 내는 것이 사람의 열정이기도 하지만 꽃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8>”는 말씀은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유한성을 묵상하게 하는데 꽃의 아름다움조차 겸허한 마음으로 자세를 다듬게 된다. 꽃의 향기란 존재를 응축해 내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응축해 낸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순전한 나드 향을 지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되길 소망한다.

사랑의 편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었나 봅니다.
왜소해진 모습에
숨어버리고도
싶었나 봅니다.
길이 아닌
길을 넘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간구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만
품었어도
어느새
사랑의 편지는
날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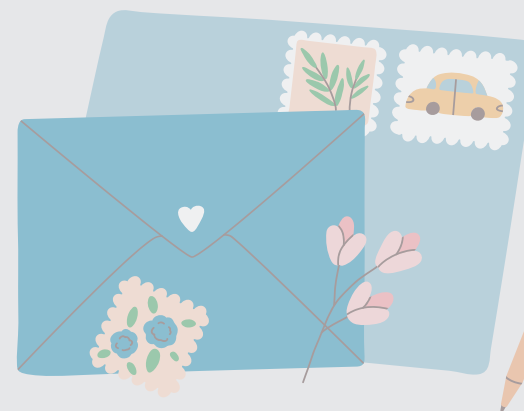
입김을 불어

열어 본 편지엔
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멋진 길이 열려있었습니다.

잠시
미련동이가 되어
결눈질 하였습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지 못한 길인 줄 알아
작아졌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님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미쁘신 님이여
내 사랑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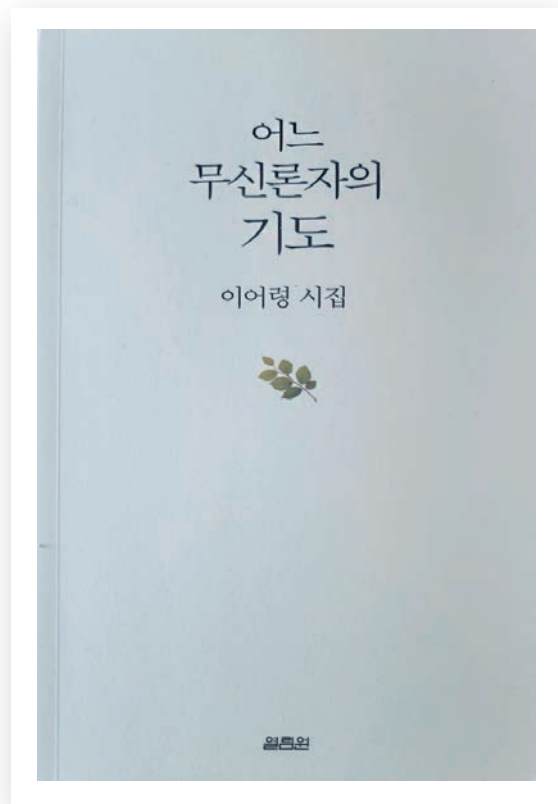


김진옥

내 시의 고향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거룩한빛광성교회 문화원 '주부문학교실'이다. 후에 기독교문학에 뜻을 두고 한 국기독교문학네트워크에서 '초록연서'라는 서재를 개설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독교문학 동인지 『믹스앤매치』를 통해 시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시가 좋고 시인이라는 칭호를 좋아하는 김진옥이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글 김형수 기자(소설가, 필명 김범)



시를 썼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리고 보여서는 안 될 달의 이면 같은 자신의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정벌레의 껍질 뒤에 숨어 있는 말랑말랑한 내 알몸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를 쓰고 나서는 늘 후회합니다.

시는 후회를 낳고 후회는 시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첫 시집은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기쁜 빛의 축제처럼 즐겁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시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산문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내 생명의 속살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한 마리 딱정벌레입니다.

원래 이번 여름호에선 일본의 여성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 『빙점』에 관한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위임목사님께서 설교 도중 언급하신 이어령 교수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빙점』 대신 이어령의 시집,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어령 교수는 당대의 문학 평론가이자 국문학자, 언론인, 교육자, 관료로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약한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과 대학 2학년 때 시인 이상의 난해한 작품을 명쾌하게 해석한 「이상론」과 기성문단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우상의 파괴」를 발표하면서 그는 한국 문단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어령은 문단과 사회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수많은 논쟁과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와 문단의 거목으로 우뚝 섰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어령은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생각의 파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성세대에 냉혹한 비판을 던지며 도전하

고 또 도전하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어령의 신랄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은 그의 시선으로 볼 때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모질게 공격하면서 그가 굳게 믿던 인간의 지성을 절대적으로 예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07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자 이어령을 아는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변신에 놀란 사람들에게 이어령은 2010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출간하면서 성실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정신없이 인생의 길을 달려오다 속도를 늦췄을 때 마주하게 된 혹독한 고독 안에서 결국 주님을 인정하게 된 간증도 감동적이었으나 무엇보다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 이민아 목사의 투병 속에서 만나게 된 주님 이야기는 실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였습니다. 한없이 나약해진 이어령에게 평생을 믿어온 지성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그가 잡아야 할 끈은 분명히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었습니다. 암 투병 후 또 실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딸을 위해 마침내 이어령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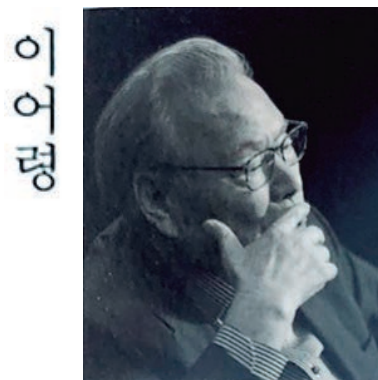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끝없이 기독교를 비난하던 이 교만한 지성인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오신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를 따듯한 품 안에 품어주시며 그의 딸, 이민아 목사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성 이어령은 그 후 2022년, 주어진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따듯한 품 안에서 그가 한 약속대로 세상 곳곳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인간의 지성이란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주님 없이 인간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해 나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어령의 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중 일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
영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습니까?

-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1」 중에서 -

여름엔 강릉이지!

글 고예님 청년기자

여름 하면 다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여름 하면 바로 바캉스, 여름휴가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지로 강릉을 추천하고 싶어요. 강릉은 겨울에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한여름 푸른 바다와 하늘로도 유명하거든요.

◇ 머슬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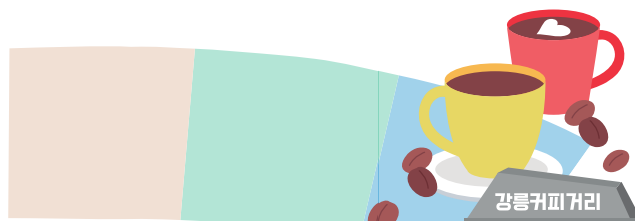
1. 강릉중앙시장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강릉중앙시장이에요. 강릉중앙시장은 강릉 터미널이나 강릉역에서 택시 타면 오래 걸리지 않고 도착할 수 있어요. 다양한 먹거리와 수산물 판매해서 관광객분들은 강릉중앙시장을 대부분 꼭 방문하는 것 같아요.

강릉에 처음 오거나, 또는 먹거리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들려야 할 장소를 추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배니 닭강정”을 추천해요. 저는 닭강정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닭강정 중 배니 닭강정이 가장 맛있었어요. 튀김옷부터 양념까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연예인들 방문 사인도 볼 수 있어요. 혹시나 직접 매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주문받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모자 호떡”집입니다. 씨앗 호떡뿐 아니라 다양한 호떡 메뉴를 맛볼 수 있어요. 이곳은 BTS 뷔도 방문할 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배니 닭강정에서 줄 섰던 것처럼 저도 줄 서고 호떡을 구매했어요. 강릉중앙시장에서 시간을 오래 못 쓰는 분들은 배니 닭강정과 모자 호떡집, 이 두 집을 꼭 방문해보길 추천해요.



◇ 발리 코코넛 테라스

2. 안목해변 카페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안목해변 카페거리에 있는 “발리 코코넛” 카페예요. 안목해변 카페거리에는 정말 많은 카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발리 코코넛” 카페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 카페는 다른 카페와 달리 발리 콘셉트로 꾸며져서 해외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면 우드 인테리어와 야자수 인테리어가 있어서 외부보다 내부에서 발리 분위기를 더 느끼실 수 있어요. 발리 분위기는 실내장식뿐만이 아니라 코코넛이 들어간 커피와 열대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 메뉴로부터도 느낄 수 있어요. 메뉴를 시키고 2층, 3층, 4층에 올라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3층을 추천하고 싶어요. 3층에는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쿠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으면 넓은 바닷가가 보이고 누우면 푸른 하늘이 보이거든요. 2층에는 바닷가를 보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는데,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분들에게 2층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4층은 야외 테라스인데 시원한 바닷가 바람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3. 강문해변 운동

강릉에는 해변이 많은데 안목해변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강문해변이에요. 강문해변은 안목해변과 달리 비교적 카페거리가 형성되어있진 않으나 대신 운동 공간이 준비되어있어요. 이 운동 공간은 실내가 아니라 야외

공간인데, 머슬 비치(Muscle Beach)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국내 최초로 머슬 비치(Head Beach)라는 곳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꼭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구름사다리, 외줄 타기, 러닝머신 등 다양하게 있어서 남녀 상관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저는 러닝머신을 경험해 봤는데 뛰면서 넓은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시원한 바닷가 바람을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을 때, 관광객처럼 보이던 남성, 여성분들은 웨이트 존에서 덤벨, 원판을 이용하여 운동했는데 마치 전문 헬스장처럼 덤벨과 원판이 준비되어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머슬 비치는 강릉에서 유명한 세인트존스 호텔과 거리도 가까워서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머무를 때, 운동하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강릉 여행에 관해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읽으셨나요? 강릉지역이 관광 활성화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여행 장소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발리 코코넛 카페 음료



내 사진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글 & 사진 홍맹순(일산 베엘교회 권사)



내 사진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그 속엔 아름다움도 추함도 부끄러움도 하루 하루 삶의 무게도 다 들어 있다. 나는 사진 속의 나를 보는 것을 즐긴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카메라를 살포시 들면 활짝 웃는다. 웃었으나 때론 웃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종종 누군가가 찍어준 내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곤 한다. 내가 말하지 않은 내 마음이 사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내면의 것을 숨길 틈을 주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 둔 이야기를 기어이 찾아내어 다시 나에게 보여준다. 나는 사진 속 내 얼굴을 보며 내 삶을 정비하곤 한다. 나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열 때도 좋다. 렌즈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림이 좋다. 나 또한 그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 셔터를 누른다. 오늘도 나는 카메라를 들고 세상 속을 걷는다. 행복하다.



여행 사진 한 컷 피서지에서 생긴 일

글 & 사진 김명익 집사

2022년 여름, 코로나를 피해 동해안으로 외손주와 막내딸과 함께 오붓한 가족여행을 떠났다. 막내가 속초 해변으로 시원스레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출렁이는 파도에 흥겨워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두고 손주의 손을 사이좋게 부여잡는다. 손주가 발등을 타고 오르는 파도가 좋은지 연신 발을 내딛는 행복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여행 #피서지 #바닷가 #겨자씨

독자 사진 이벤트

‘가을 여행’을 주제로 여행 사진 한 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택된 사진과 사연은 겨울호 『겨자씨』에 소개하고,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가을 여행’ 사진 1장 & 사연 5~6줄

참여 기간: 8월 4일까지

보낼 곳: jye3315@naver.com

문의: 010-2579-4687



크로스로드 기프트로 감사와 사랑을 전해요. 크로스로드 기프트!

글 김영은 권사(크로스로드 팀장)

크로스로드 기프트 팀 소개

사단법인 크로스로드(이사장 정성진목사) 내에서 기독교 관련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팀입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들, 넓게는 기독교 전반에 필요한 절기의 물품과 소품 등을 직접 기획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그 생산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생 배경

사업성이나 상업성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품질과 디자인이 아쉽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로스로드 기프트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같은 가격이라면 양질의 선물을 제공하고, 사역하시는 교역자 및 복음 전도자분들께도 만족과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쓰임 받고 싶은 소망 속에 2024년 1월, 크로스로드 기프트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아이템

- 1 달력, 말씀카드, 스티커, 현수막 디자인, 그리고 관련 완성품
- 2 교회 행사, 기념일에 필요한 상품 및 선물
- 3 단체 모임에 필요한 티셔츠와 모자
- 4 교회 내부(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성경학교, 임직식, 수료식 등) 장식 및 포토존 제작



5월, 카네이션 브로치 만들기 활동 소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빛운정교회 성도들 중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을 찾아 '손뜨개 카네이션 브로치 만들기' 유급 부업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로 시간과 에너지를 드렸으며, 크로스로드 기프트 팀은 성도님들의 가사에 일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손뜨개 활동에 참여한 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제야 찾았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었습니다. 정성을 담은 한 땀, 한 땀이 전도에 사용될 생각을 하니 풍성한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광성의 형제 교회들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선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지친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포부

이제 첫발을 내디딘 크로스로드 기프트 팀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감각으로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제시하고, 향상된 품질로 선물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크로스로드 기프트 팀에서 제작한 모든 상품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의 및 신청 방법

- 1 유선 (010-4217-1606, 김영은 팀장)
- 2 온라인 주문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3 상품 제작에 필요시 디자인과 캘리그래피를 지원해 드리며,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 4 상품 제작은 크로스로드 기프트 팀 자체에서 이루어지나, 솜씨와 재능이 있는 성도님이나 소소한 일이 필요한 분들께 작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4 SUMMER
VOL.51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51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박승현

발행일 : 2024년 7월 7일

인쇄 : 천광인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최아인, 태경환, 최예준

청년부 취재기자 : 고예남, 김다빈,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사진기자 : 이종수, 이용주

편집 : 김형수

책임편집 :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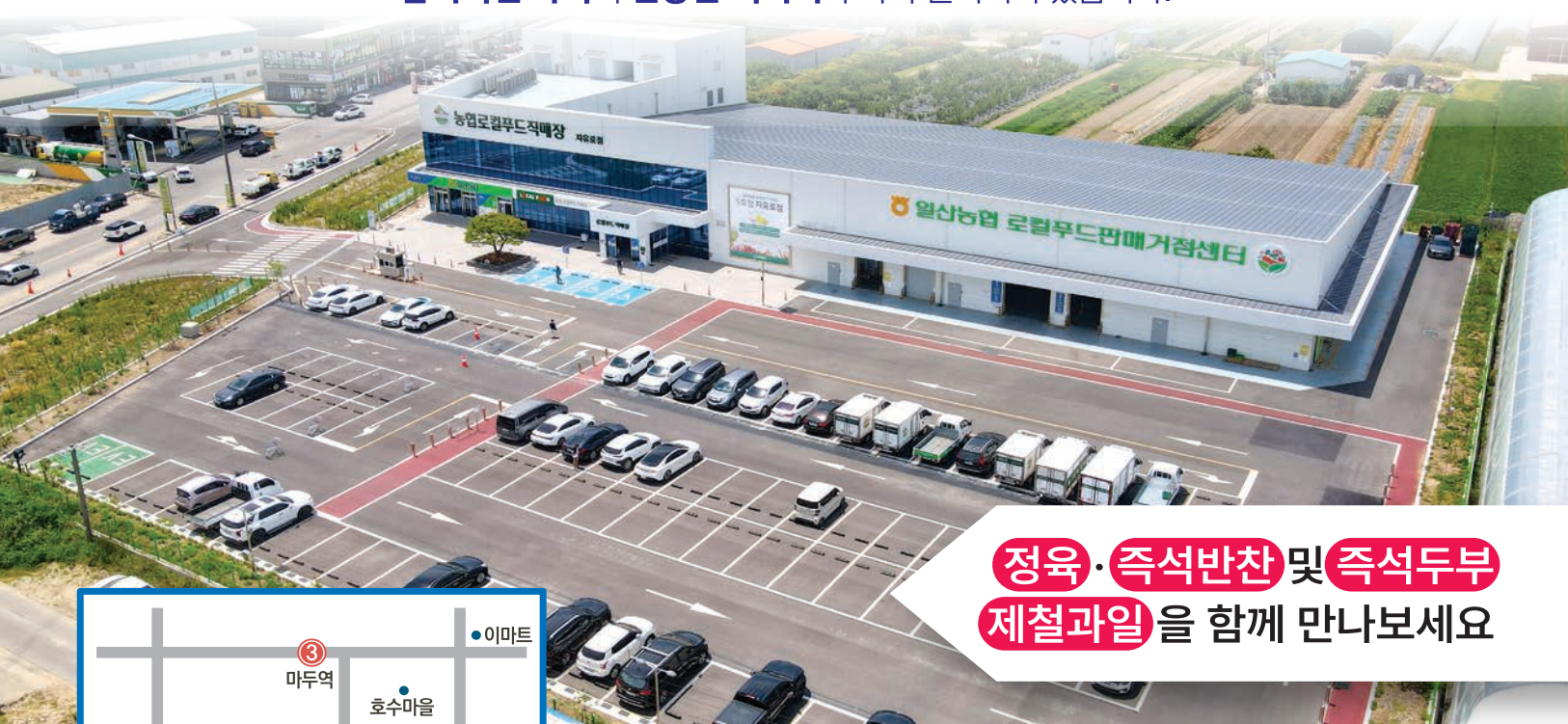
☎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OPEN!

2024.04.08 자유로점 오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확하자마자 바로 식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정육 · 즉석반찬 및 즉석두부
제철과일을 함께 만나보세요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74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1층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TEL: 031)906-8701

금융점포 ■ 본점 975-8061 ■ 풍산지점 906-3234 ■ 산돌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강촌지점 932-806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탄현북지점 916-8061
 ■ 풍산역지점 977-8062 ■ 킨텍스역지점 918-8061 ■ 경제사업소 ■ 영농지원센터 907-0252 ■ 제1·2농기계서비스센터 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975-8701 ■ 로컬푸드 ■ 로컬푸드 풍산점(1호점) 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2호점) 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3호점) 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4호점) 918-8161 ■ 로컬푸드 자유로점(5호점) 906-8701 ■ 로컬푸드 민마루점(6호점) 추진중